



참여 | 협력 | 영광

# 서울대 총동창신문

개학 1895년  
통합개교 1946년  
창간 1976년 4월 24일

www.snua.or.kr

[월간 제541호] 2023년 4월 15일



04 김덕길 가네다홀딩스 회장  
"양국 정부, 민간교류 막지만 말야 달라"

05 역사연구기록관 건설 현장  
2024년 상반기 완공한다



09 전영에 명예교수 파우스트 특강  
"인간은 갈 곳 있기에 방황하는 존재"



12 한동헌 모교 치대 교수  
돈의동 쪽방촌에서 의료 봉사

## 500여 동문 불 밝힌 축제의 시간



정기총회 및 관악대상 시상식에 앞서 모교 동문합창단이 축하공연을 펼쳤다. 사진은 동문합창단이 'You raise me up'을 부를 때 참석 동문들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화답하는 모습.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듯한 장관이 연출됐다.

### 정기총회·관악대상 시상식

#### 윤석열 대통령 축전 보내와

본회는 3월 24일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제25회 관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본회 김종섭(사회사업66-70) 회장과 모교 유홍립(정치80-84) 총장을 비롯해 동문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관악대상 시상식에서 이재원(상학55-59) 원앤씨 회장, 이부섭(화학공학56-60) 동진씨미켄 회장, 조경일(약학64-68) 하나제약 회장, 하기환(전기공학66-70) 한남제인 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은 상패와 순금으로 만든 'VERITAS LUX MEA' 메달을 부상으로 받았다. 미국에 거주 중인 하기환 동문은

부인 간병으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해, 공적 소개로 대신했다. <수상 소감 및 공적 3면>

김종섭 본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취임 당시 저는 '보람 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동창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보람 있는 동창회가 되기 위해 총동창회 사회공헌위원회가 모교 글로벌사

회공헌단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7월 라오스에서 농촌 봉사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심 있는 동문들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동문 단원 모집 알림 2면>

김 회장은 또 "동창회가 우리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보려 한다. 튀르키예 지진 성금으로 10만 달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며 동창회가 사회 공헌에도 힘쓰고 있음을 강조했다.

"즐거운 동창회가 되기 위해 팬데믹 동안 다소 위축된 대면 모임 행사를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며 동창회 연중 행사를 안내하고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윤석열(법학79-83)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왔다. 윤 대통령은 관악대상 수상자들을 "이웃과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생활 속에서 자유와 연대를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며 축하하고, "더욱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민만을 바라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말을 전해왔다. 동문들은 격려의 박수로 화답했다. >>2면에 계속



왼쪽부터 관악대상 수상한 조경일·이재원·이부섭 동문.

### 이부섭 회장 총 15억원 기부

이부섭(화학공학56-60·동진씨미켄 회장) 관악경제인회 회장이 4월 6일 관악경제인회 기부금 5억원과 관악회 장학금 5억원 등 총 10억원을 본회에 쾌척했다.

지난해 관악경제인회에 5억원을 기부한 이 동문은 본회에 총 15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이 동문은 서울대발전위원장을 역임하며 모교 발전기금으로도 50여억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모교 사랑을 실천해왔다.

이밖에도 3월 한 달간 장학금 기부가 답지했다. 남정현(건축57-61 전 대우테크 고문) 동문이 2000만원을 추가 기부했다. 남 동문은 기존에 2억원을 기부해 특지장학회를 운영해 오다 최근 추가 기부를 통해 총 3억80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이 중 1억원은 고 손치무(대학원70졸) 전 지질학과 명예교수 특지에 기부했다.

처음 기부의 문을 연 동문도 있다. 김정호(AIP 47기) 동문이 3월 7일 100만원을 보내왔다. 이종일(농공68-75) 동문은 장학금 1000만원 조성을 목표로 월 10만원씩 2030년까지 기부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홍정화(경영03-08) 동문은 3월 2일 장학금 200만원을 기부했다. 홍 동문은 1년에 2~3차례씩 비슷한 액수를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허삼남(축산68-75) 동문은 2009년 본회에 기부한 이후 100만원을 추가 기부했다. 지난해 약정 기부를 통해 장학금 550만원을 조성한 김원기(GLP 31기) 동문은 월 100만원씩 새로운 약정 기부를 시작했다.

별지부록 : 장학금 기부 참여 신청서

### 관악춘추

## 신록의 계절에 생각해보는 한반도 현실



이우탁  
동양사 84-88  
연합뉴스 선임기자  
본지 논설위원

향긋한 봄내음이 물씬한 벼들골에서 낭만을 즐겨야 할 관악인들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야 하는 한반도의 현실이 서럽다.

지난달 22일 '서울 시청 상공 800m서 핵폭발 댄...시뮬레이션 해보니'라는 기사가 한 일간지에 버젓이 실렸다. 핵위협 분석 사이트 '누크랩'의 공개 프로그램을 사용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상공 800m에서 20kt급 핵탄두가 폭발하면 벌어질 피해를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인데 그 내용이 참혹하다.

갑자기 거대한 버섯구름이 치솟더니 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100m, 깊이 30m는 움푹 파인 분화구가 생기고 그 안의 모든 건물이 파괴되는 등 초토화됐다. 수십만에 달하는 사망자와 부상자

는 물론이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까지도 상에서 없어지는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이런 시뮬레이션을 도대체 왜 했을까. 언론은 여론을 먹고 살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북한의 핵무기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리라.

실제로 이 보도 직전인 3월 19일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동해 목표 상공 800m에서 폭발시키는 핵탄두의 성능 실험을 했다. 핵무기는 공격 목적과 표적에 따라 폭발 고도를 수백m에서 수십km까지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 고도 800m 정도에서 폭발시킬 경우 지상 표적에 대한 파괴력이 최대화된다고 한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도 500~700m 상공에서 폭발했다.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은 작년 9월 8일 핵무력법 제화를 통해 핵무기를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의 수도 서울 상공을 타깃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사람들이

느낀 핵재앙의 공포가 현실화된 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흔히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벌써부터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라든가 나토식 핵공유 또는 전술핵 재배치, 나아가 한국의 독자 핵개발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 원자력(핵) 공학의 역사는 서울대에 1959년 원자력공학과가 신설되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초기 핵개발도 서울대 물리학과와 공대 교수 출신으로 월북했던 도상록과 이승기 박사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너진 한반도내 핵균형을 바로잡고, 서울 상공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이때, 관악인들의 에너지도 결합돼야 한다. 대통령부터 원자핵공학과 학생까지 모두 나서야 할 일이다. "누가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는 말이 남북한 핵균형이 절실한 이 국면에도 유효하다.

## 알림

## 2023년 동문 나눔 골프대회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서는 동문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 및 나눔 기금 마련을 위해, 동문 골프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날짜가 5월 22일로 한 주 앞당겨졌습니다)

## 대회개요

1. 참가범위: 총동창회 전 회원
2. 일시: 2023. 5. 22. (월) 오후 1시
3. 장소: 남서울CC(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백현로 161)
4. 진행방법: 친선팀과 단과대학별 단체전 대항전으로 진행함  
가. 친선팀: 초청자 및 대회 신청자 - 신페리오 점수로 순위 결정  
나. 단체전: 각 단과 대표선수 4명 - 스트로크 점수 합계로 순위 결정  
※ 메달리스트는 대표팀, 친선팀 각각 수여  
※ 진행은 샷건 방식으로 진행
5. 참가인원: 40팀(총 160명) \*선착순 접수 마감

## 참가비 및 신청방법

1. 참가비: 참가자는 50만원 이상을 동창회에 사전납부해야 합니다.  
\*참가자에게는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그늘집, 점심, 저녁 만찬 비용과 참가 선물을 제공합니다.
2. 신청방법: 참가자는 참가 신청을 동창회에, 성함과 출신대학, 연락처(휴대폰)를 이메일로 알려주시고, 참가비를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 이메일 jang9869@hanmail.net  
● 참가비 계좌: 신한은행 140-013-055937(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평생회비 또는 2023년도 동창회비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5월 15일(월) 이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참가비 환불이 불가합니다.

## 협찬 안내

1.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협찬해 주실 동문님은, 다음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 협찬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055887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물품으로 협찬해 주실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문의: 02-702-2233(대표전화), 02-879-8204(김장영 차장)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김 종 섭

## 2023 하계 라오스 SNU공헌단 동문단원 모집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회공헌위원회는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과 함께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서 라오스 농촌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문과 함께 하는 2023 하계 라오스 SNU공헌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번 하계 방학 서울대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라오스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활동에 함께 해주실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I. 활동개요

## 1) 주요활동

- ① 농업적정기술나눔  
- 스마트 닭장 제작  
- 지속가능한 농업기술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  
- 현지 초등학교 대상 기술·과학교육
- ② 의료나눔 (동문단원 주활동 영역)  
- 취약농가 주민 및 어르신 대상 진료활동  
- 농촌 산업안전 보건 캠페인  
- 현지 초등학교 대상 보건교육
- ③ 문화나눔  
- 상호 문화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활동 진행

## 2) 동문단원 역할

- ① 취약농가 주민 및 어르신 대상 진료활동 기획 및 진행
- ② 농촌 산업안전 보건 캠페인 기획·자문 및 진행
- ③ 현지 초등학교 대상 보건교육 기획·자문 및 진행

## 3) 일정

- ① 파견: 8/9(수) ~ 8/20(일)  
※ 동문단원 필수 참여: 8/12(토) ~ 8/20(일)
- ② 준비:  
정기회의(18회): 5월 셋째 주~6월 마지막 주 매주 수요일 19:00-22:00 (7회)  
7월 첫째 주~8월 첫째 주 화·목 19:00-22:00 (11회)  
공통교육(2회): 1차: 5/20(토) 13:00-16:00 (실시간 온라인 교육)  
2차 및 발대식: 7/12(수) 14:00-17:00  
기타 단원 간 일정 조율을 통한 수시 회의 및 준비 활동  
※ 동문단원 필수 참여 일정(조정 가능): 오리엔테이션(5/17), 중간점검회의(7/6), 최종점검회의(8/3), 공통교육 및 발대식(5/20, 7/12)
- ④ 참가비: 1인당 60만원

## II. 모집 및 선발

## 1) 모집 대상

- ① 서울대학교 동문 중 보건 의료 직종 관련 종사자 및 관련 자격증 보유자
- ② 동문단원 필수 파견(8/12-8/20) 및 준비 일정(5회)에 참여 가능한 자

## 2) 모집 인원: 4명

## 3) 모집 일정

- ① 지원서 접수: 5/7(일) 마감
- ② 지원방법: 이메일(scholarship@snu.ac.kr) 또는 팩스(02-703-0755)  
※ 지원양식은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홈페이지(https://www.snu.ac.kr) 참조
- ④ 선발 통보: 5/12(금) 개별 통보
- ⑤ 문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담당자 02-879-8211

## 김종섭 회장 “우리만의 모임 아니다, 주변 돌아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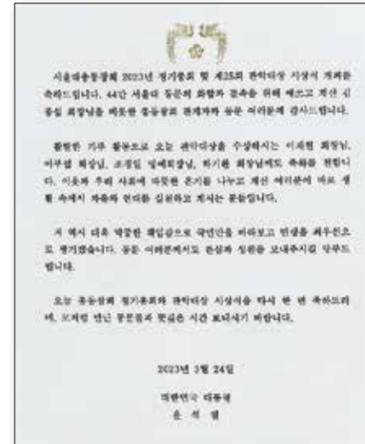
3월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김종섭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합창공연·객석이벤트 등  
적극적인 동문 참여 빛나

>>1면에 이어서

이날 정기총회에서 2022년도 결산안을 승인했다. 본회는 2022년 전년 대비 3800만원 증가한 2억38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다. 회비 수입과 잔조금 수입도 전기 대비 각 4200만원, 1억 2600만원 증가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사를 대면 행사로 전환하면서 행사비용은 다소 증가했다.

KBS 앵커 양영은(불문96-00) 동문이 진행한 이날 행사에는 본회 금진호(법학50-58)·손일근(법학51-64)·이금기(약학55-59)·이기준(화학공학57-61)·김경환(법학62-66)·오세정(물리71-75) 고문, 이희범(전자공학67-71) 명예회장, 김인규(정치69-73) 수석부회장과 각 단과·지부·기과 동창회장 등이 참석하고, 신희영(의학74-80)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종찬(행대원70-72) 우당교육문화재단 이사장 등도 함께했다. 모교에선 올해 2월 취임한 유홍림 총장과 김성규(국문81-85) 교육부총장, 김재영(토목공학82-86) 연구부총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 총회에 보내온 축전.

장, 윤영호(의학84-90) 기획부총장 등 부총장단이 모두 참석해 동문들에게 인사했다.

유 총장은 축사에서 “선배님들께서 국가발전을 선도해 주셨기에 서울대가 겨레의 대학으로 사랑받았지만, 오늘날 서울대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서울대 대전환을 통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며 자신의 청사진을 소개했다. 유 총장은 “교육 면에선 학부대학을 통해 1, 2학년 학생에게 전공과 관계 없이 문과와 이과를 아우르는 융합교육을 시행하고, 기숙대학에서 학생들이 함께 어



모교 동문합창단이 식전 축하 공연에서 '산유화', '부끄러움', 'You Raise Me Up'을 열창했다.



'SNU 남성 8중창단'의 공연 모습.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 '대장간의 합창' 등을 들려줬다.

울려 거주하고 교류하며 소통과 협업 능력을 함양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와 인류난제를 해결하는 연구에도 앞장서고, 사회 공헌을 위해 서울대 집단 지성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만찬에서 이희범 명예회장은 “서울대 졸업생들은 국가와 사회에 진부채가 있다. 동창회와 서울대가 최근 들어 국내외에 공헌하는 활동이 활발해 서울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진다”며 독려했다. 변주선 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도 건배사를 통해 동문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독려했다.

김종섭 회장은 이날 동문들에게 화사한 봄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고안했다. 무대 전면에 봄꽃을 배치하고, “무대에 가장 많은 동문이 올라오는 총회가 될 것”이라는 말처럼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동문 합창단의 식전 축하 공연에서 ‘산유화’, ‘부끄러움’에 이어 ‘You Raise Me Up’을 부를 때, 합창 지휘자의 안내에 따라 객석의 동문 모두가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흔들자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듯한 장관이 연출됐다.

이부섭 동문이 지원한 ‘SNU 남성 8중창단’의 공연도 짜릿짜릿한 목소리로 희망찬 새봄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재학생과 동문으로 구성된 중창단은 트럼페티스트 박상현·피아니스트 강지현 동문과 함께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 ‘대장간의 합창’, 오페라 ‘아이다’ 중 개선행진곡, 가곡 ‘항수’를 열창했다. 동문들은 공연을 마친 후배들이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박수를 보내며 화답했다.

이날 참석자 전원에게 이금기 고문이 일동후디스의 유산균 음료를 협찬했으며, 본회에서 목욕용품 세트와 건강식품을 기념품으로 증정했다. 한편 4월 30일자로 4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이승무(경제72-76) 본회 사무총장에게 김종섭 회장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수진기자

## -바로 잡습니다-

본지 539호(23년 2월호) 6면 ‘한류 최전선에 선 서울대인’ 기사 리드 부분의 ‘음대는 실용음악 분야 인재도 양성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 잡습니다. 올해 1학기 신설된 음악학과에서 전자음악, 멀티미디어음악 등 교육이 이뤄진다는 보도를 토대로 ‘실용음악 분야 인재 양성’이라고 해석했으나, 음대측으로부터 “과잉 해석”이며, “대중음악가를 양성하는 실용음악과 클래식 음악을 가르치는 서울대 음대의 교육제도는 다르기 때문에, 입시 등 민감한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정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또 540호(3월호) 20면 동정 ‘행사’에서 문창진 동문의 입학연도를 ‘71’에서 ‘72’로 바로 잡습니다.

이재원(상학55-59) 원앤씨 회장



### “높아진 한국의 위상만큼 서울대가 세계 넘버원으로 우뚝 설 것”

**소감** “안녕하세요. 상과대학 55학번 이재원입니다. 먼저 관악대상 수상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악대상은 모교와 총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주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이 저의 긍지를 키워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교를 다닐 때만 해도 분리돼 있던 단과대학이 현재는 관악캠퍼스에 한데 모여 학제 간 교류도 활발하고 융합도 잘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한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져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

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대표 명문대학이자 우리들의 모교인 서울대학교도 국내에서만 아니라 세계의 ‘넘버원 대학’으로 우뚝 설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 영광스러운 관악대상을 수상하여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저를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관악대상 심사위원님들과 김인규 심사위원장님, 총동창회 김종섭 회장님과 서울대학교 유희림 총장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 동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적** 모교 졸업 후 제일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동양TV, 금성사, 반도상사, 삼화제지, 해창수산 등을 거쳐 1978년 일성제지 회장을 역임했고 1985년부터 현재에 종사하고 있다. 뛰어난 리더십과 창의적인 경영으로 원앤씨 등 여러 기업을 탄탄한 회사로 육성했다. 원앤씨는 생활용품 및 화장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인재 중심의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안산과 청주에 공장을 두고 지역사회와 협력함으로써 고용 창출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섰고, 미래세대 인재 육성을 위해 본회 장학기금에 10억원, 상대향상장학재단에 2000만원을 쾌척하는 등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기여했다.

이부섭(화학공학56-60) 동진씨미켄 회장·관악경제인회 회장



### “쉽지 않은 세상만사 끈기 있으면 웃는다”

**소감** “1937년 농가에서 태어난 저는 13세 때 6·25전쟁이 터져 인민군에 징집될 나이는 간신히 면했지만, 부모 형제들이 다 잡혀가서 빨빨이 흩어져 고향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제 통치하에서 일본말을 배웠고요. 6·25전쟁 끝나고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건물이 좋으니까 유엔군이 사령부로서는 바람에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부지에 텐트 20개를 지어 학교 대신 썼어요. 혼자서 농사를 지어야 했고, 집에서 학교까지 2시간 반, 왕복 5시간을 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외려 그 덕분에 건강은 더 좋아져, 지금도 설악산을 1년에 한두

번씩 오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모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해서 반도체 재료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것 만드는 연구를 논문 쓴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수출을 금지하면서 세상이 뒤집혀 국내 기업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1년 매출이 2조2000억원 하는 중견 기업이 됐습니다. 세상만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끈기를 갖고 해보면 누가 이기는지 결정이 납니다. 끈기와 인내, 건강을 위주로 생각하고 실천하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적** 발포제 및 전자재료 소재 전문회사 동진씨미켄을 1967년 설립해 수입에 의존하던 발포제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화학 소재의 국산화에 기여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EUV PR을 국내 기업 최초로 국산화해 국내 반도체 완성업체의 세계 경쟁력 향상에 공헌했다. 동진장학재단을 설립해 유능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한편 모교에 20여 년간 장학기금을 기부해 서울대 발전공로상 등을 받았다. 수년간 공대동창회장을 맡아 봉사했고 본회 관악경제인회 초대 회장을 맡아 동문 기업인의 역할과 지혜를 결집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했다.

조경일(약학64-68) 하나제약 회장



### “운이 좋아 장학금 받으며 졸업, 장학회 만들어 보답”

**소감** “영광스러운 관악대상 수상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문과 내린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64년 저는 모교 약대에 입학했고, 당시 서울대 학생들이 누구나 하듯 아르바이트로 가정교사를 하였고, 운이 좋아 장학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졸업을 했습니다. 장학금을 준 분에게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저도 장학회를 만들어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수한 의약품을 만들어 보자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세대는 거의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인류가 수십 세기에 걸쳐 경험했을 변화를 한 세대 만에 경험한 복 받은 세대이기

도 합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몇십년 만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쾌거를 이룩했으며, 여기 계시는 동문 여러분 모두가 그 일에 참여하셨고, 우리 모교 또한 크게 기여했기에 무척 자랑스롭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에 봉사하는 삶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국가 발전과 세계 인류건강에 공헌하는 미래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랜 시간 저와 동고동락 해온 아내 임영자님과 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사랑과 행복이 넘칠길 기원합니다.”

**공적** 명문제약과 하나제약을 경영하며 마취·진정제, 마약성 진통제 등 의약품 개발을 통해 제약업계 발전에 이바지했고, 약학계 인재 양성이 선진 의료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일념으로 모교에 55억여 원, 종양대 등에 5억여 원, 본회 재단에 1억원의 발전기금 및 장학금을 지원했다. ‘신뢰와 나눔’이란 기업 이념에 따라 ‘성빈센트 드 불 자비의 수녀회’ 등 30곳에 19억여 원, ‘사랑의열매’ 재단에 2억원, 무료 진료병원과 자선단체에 의약품 기부 등 소외층을 위한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을 적극 실천했으며 마약류 의약품 전문기업 경영자로서 마약퇴치운동본부에 1700만원을 기부했다.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하기환(전기공학66-70) 한남체인 회장·제21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



### “굴곡 겪으며 사업 일군 50년, 힘 닿는대로 모교 위해 일하겠다”

**소감**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아 한국에 갈 형편이 안됐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총동창회에서 주는 최고 영예의 상인 관악대상을 받게 돼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는 1970년 미국에 유학 온 후 정착해 현지에서 여러 사업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엔 LA 폭동, 부동산 폭락 등으로 회사가 파산할 지경으로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2020년엔 조국 대한민국에서 주는 최고 훈장인 무궁화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분한 상인 건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한인회장 4년, 상공회의소 회장 4년 등 LA 한

인사회를 위해 나름대로 봉사 활동을 많이 해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관악대상은 모교 졸업생으로서 서울대 및 동창회에 기여한 것이 없어 상 소식이 그저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무척대고 나서는 것도 보기 안 좋을 것 같아 여러 번 사양했었지요. 그러나 김종섭 총동창회장이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셔서 상을 받았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면 상을 받게 해주신 분들의 체면을 상하게 할 텐데 솔직히 한편으론 걱정입니다. 주신 상에 걸맞게 힘닿는 대로 열심히 서울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적** 1992년 LA 폭동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한인보호자경단 활동 및 성금 모금에 솔선수범해 복구사업을 전개했고 LA한인회장, LA상공회의소 회장,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장 등 한인단체장을 두루 역임하면서 한인사회 단합을 이끌어냈다. 코리아타운 경찰위원회 위원장, 월셔주민의회 의장 등을 맡는 등 꾸준한 지역사회 봉사로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미국 주류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재외동포 기업인과 한국 기업인이 참가하는 제21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을 맡아 한민족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규모 식품 유통기업인 한남체인을 설립, 경영하고 있다.

# “양국 정부, 한·일 민간교류 막지만 말아 달라”

김덕길 (영문66입)

가네다홀딩스 회장·일본총동창회 회장



대담 : 신예리 (영문87-91) JTBC 자문역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한 재일 교포가 기부에 나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주인공은 일본총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덕길 가네다홀딩스 회장. 김 회장은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 재일 교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해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30여년간 일본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 동시에 한일 교류를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한국에 득이 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오사카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세 자녀에게 울산(학성) 김씨 족보를 나눠줄 정도로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이 크다. 지난 4월 2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파르나호텔에서 김덕길 동문을 만났다.

-한국엔 어떤 일로 방문하셨는지요?

“휴가 중입니다. 일이 없어도 평소 한국은 자주 들려요. 선전 묘소도 한국에 있고요. 아버님 고향이 울산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한 배상 방안을 발표하자 앞장서서 기부 의사를 밝히셨는데 어떤 마음에서 내린 결정인가요?

“한국 정부에서 그런 방안을 발표했을 때,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빨리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간 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기부도 그 연장선에 있지요.”

제가 보는 한국은 위기 상황입니다. 북핵 위기만 해도 일본과 협조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중국과 협상을 할 때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일본과 협력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동문은 이 대목에서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사판공실 주임과의 친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왕이 위원이 주일 중국 대사를 지냈잖아요. 대사 직책을 맡기 전부터 한 모임에서 만난 뒤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과거에 한국과 중국이 모두 일본 제국 주위의 피해를 입었다는 공통분모가 있어 금방 친하게 됐죠. 일본 경제계에도 둘 사이가 알려지다 보니 중국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찾아올 정도였죠.”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 전선을 펴야 한다는 지적은 외교 전문

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필요할 텐데 아시다시피 한국 내에선 일본 정부의 사과나 가해 기업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재단을 통한 배상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기부를 결정하실 때 이런 점이 부담되진 않았나요?

“눈치보지 말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재단이 설립되면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고,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에서 나서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일본에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후손들이 여럿 살아 계셔서 그분들의 아픈 사연을 평소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징용 피해자 세 분이 재단을 통한 배상에 거부 의사를 밝히셨다고 들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꼭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김 회장은 이번뿐 아니라 한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재일교포들이 출선수범했던 사례도 소개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대회를 치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재일 교포들이 성금을 모아서 부쳤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는 한국에 달러가 부족하다고 해서 5000만엔에 해당하는 외화예금을 한국의 은행으로 옮기기도 했어요.”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재일 교포들이 힘들어지고, 특히 젊은 세대가 애로를 겪는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도 이번 기부에 영향을 미쳤는지요.

“사실 지금의 교포사회는 과거와 달라졌어요. 한일 관계의 좋고 나쁨이 생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들 아주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

-과거와는 달라졌더니 다행입니다. 얼마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파친코’를 통해 한국에서도 재일 교포들의 신산했던 삶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회장님께서 1946년 오사카에서 태어나 자라셨다고 들었는데 당시에는 일본 사회에서 적지 않은 차별과 핍박을 겪지 않으셨나요?

“우리 세대는 아무리 똑똑해도 진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어요.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던 게 한 예죠. 제가 어렸을 때 일본 아이들과 싸움을 많이 했는데 당시 학교에서 유일한 한국 사람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년 사이 아버지 사업이 커지면서 동생들은 저 같은 일은 안 당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입구에는 늘 태극기를 걸어 두었는데 아버지는 신라 경순왕의 후손이란 점을 강조하시면서 한국인으로 당당하라고, 일본 아이들에게 공부든 싸움이든 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과거보다 재일교포의 삶이 좀 나아졌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차별이 많이 줄어든 건가요?

“공식적인 차별은 없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야 왜 없겠어요. 한국에서도 출신과 학교를 따지는 분들이 있듯이, 재일 교포에게 색안경을 낀 일본 기업도 여전히 존재하죠. 그런 차별까지 사라지려면 한 세대는 더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도 K팝과 드라마 영화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 재일교포로는 첫 기부

### 경제·안보 일본과 협력 절실

### “중국 상대에도 일본 활용해야”

### 한·일 해저광케이블 숨은 주역

### “사할린 동포에게도 관심 갖길”

등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재일 교포 청년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나요.

“맞습니다. 최근 조카의 딸이 일본 친구들과 한국의 한 대학 어학당에서 6개월 공부하고 왔는데, 그 친구들이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더라고요. 제가 자녀 셋을 두고 있는데, 막내 딸이 일본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재일 교포라는 강점을 심본 활용해서 한국 관련 네트워크를 잘 구축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회장은 일본에서 부친께서 물려주신 건설·부동산업을 해 오다가 IT 사업까지 영역을 넓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호기심이 많아요. 1983년 오사카대 출신들을 모아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선 소프트웨어 사업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전자산업연합회가 우리 회사를 방문해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돌아가기도 했죠. 한국이 일본보다 한 발 늦게 눈을 뜬 건데 지금은 일본을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렀으니 정말 대단하죠.”

-현재 운영하고 계신 가네다홀딩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태양광, 부동산, 콘텐츠 회사 등을 거느린 지주회사입니다.”

-재일 교포로서 차별과 편견을 뚫고 사업가로 성공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비결은 무엇이었는지요.

김덕길 회장은

1946년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오사카 시립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한다. 1966년 모교 영문과에 입학했다가 곧바로 공학부과를 바꿨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망으로 사업 승계를 위해 학교를 중퇴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건설·부동산업이 1970년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타격을 입자, 1983년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하고 AIS그룹을 일구었다.

김 동문은 2002년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해저광케이블 네트워크 사업의 숨은 주역이다. 1년 가까이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오가며 KT와 큐슈전력을 설득, 수년 동안 늦어졌던 광케이블 개통이 현실화되는 데 일조했다.

또 그는 재일교포 사회에서 마당발로도 통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전개하면서 일본의 재계 및 관계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맺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일 경제인간담회, 한일 청년포럼, 한일 IT포럼 등을 이끌어 민간 외교에 앞장서 왔다. 최근에는 사할린 동포의 귀국을 돕는 일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을 정리하고 ㈜지바에너지와 ㈜MANGARAK(콘텐츠 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한간화회 공동회장, Korea IT Network-Japan 회장, 동경대학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일본은 신용이 중요합니다. 부친이 고생하면서 쌓아온 신용 덕분에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가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본서 나고 자라셨는데 서울대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는지요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한국에 친척을 만나러 왔었어요. 일본밖에 모르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일본으로 돌아와서 무작정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할 방법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서울대학교에 해외 교포를 위한 입학 전형이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당시 한국말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1년간 한국어를 익힌 뒤 들어갈 수 있었죠. 영문과를 택한 것은 다른 과목에 비해 한국말이 서툴러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아서, 중간에 공대로 전공을 바꿨죠. 공대의 경우 수학 공식은 이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 원서 수업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버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졸업하지 못하고 중간에 일본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대학 시절 인상에 남는 경험은 어떤 게 있나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분이셨는데 서울대에 간다고 하니 반색하시며 롤렉스 시계를 사주셨어요. 그걸 차고 다니다 일주일 만에 소매치기를 당했죠. 당시 롤렉스 시계를 신세계백화점에서 판다는 얘기를 듣고 무작정 찾아가 봤는데 세 시계를 찾은 손 없었어요. 체념한 표정으로 터덜터덜 나오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그런 모습이 딱해 보였는지 이유를 물으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듣더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 집에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큰 위로가 됐지요. 그분이



김덕길 동문이 지금까지 간직한 서울대 연구생증, 도서관 열람증, 학생증.

# 역사연구기록관 내년 상반기 완공한다



왼쪽 사진은 4월초 촬영된 75동 재건축 공사 현장. 지하2층, 지상 6층 중 4층까지 올라간 모습이다. 오른쪽 사진은 조감도 정면 모습.

## 2021년 첫삽...대학신문 건물 재건축 관악 240여 개 건물 중 27번째 규모 동창회·농생대·대학신문 등 입주

정문을 지나 본부 행정관 쪽 오르막길을 지나쳐 자연대, 농생대 강의동으로 가는 길. 멀리 노란색 크레인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고, 그 옆으로 빨간색 콘크리트 펌프 노즐이 공중에 커다란 포물선을 그리며 시멘트를 들어붓는다. 공사 트럭이 오갈 수 있는 공간만 빼빼히 열린 채 높다란 가림막이 둘러쳐져, 길가에선 그 위용을 알아보기 어렵지만, 농생대 제3 학생식당 옥상에서 보면 사뭇 웅장함마저 느껴진다. 역사연구기록관이 들어서서, 관악캠퍼스 75동 재건축 공사 현장 이야기다.

2021년 7월 12일 첫삽을 떠 1년 9개월여를 지나는 지금, 토목 공정률은 76.5%, 건축 공정률은 34.5%까지 왔다. 배면 및 전면 공동구 터파기와 되메우기·잔토 처리가 끝났으며 지상 3층 콘크리트 타설, 지상 4층 보 및 슬라브 거푸집 설치, 지상 4층 바닥과 보의 철근 가공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상태다. 지상 1, 2층의 전등 및 전열 배선 작업과 3, 4층 설비 매입 배관 작업을 마쳐 전기 공정률은 21.1%를 지났다.

지하 2층, 지상 6층 중 이제 4층을 올리고 있는데도 인상적인 규모였다. 완성되면 연면적 1만890㎡, 최고 높이 27.8m로, 관악캠퍼스에 있는 240여 개 건물 중 27번째로 커 역사연구기록관이 애초의 취지와 달리 단일 건물로 지어지지 못한 아쉬움을 씻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역사연구기록관은 본회의 숙원사업이었다. 임광수(기계공학48-52) 임광토 건 회장의 본회 회장 임기 마지막 때 논의가 시작돼 2014년 서정화(법학51-55) 전 내부부장관이 본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50억원 기부 의사를 밝혀 구체화됐다. 정문 인근, 문화관 재건축, 본관 잔디광장 우측 공간 등 건물로 포화 상태인 관악캠퍼스에서 뚜렷한 신규 부지를 확

보하지 못한 채 표류하다 2019년 당시 오세정(물리71-75) 총장 취임 후 사업 계획을 전면 변경, 75동 대학신문 건물을 재건축해 역사연구기록관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총 사업비 273억원 중 재단법인 관악회가 100억원을 지원한다. 이중 50억원은 서정화 전 회장이 마련한 한화의 기부금이다. 정부 출연금으로 113억원, 농생대에서 60억원을 충당했다. 기관별 공간 비율은 농생대가 48%, 역사연구기록관이 43%, 대학신문이 9%이며 본회 및 관악회의 사무공간은 2층에 마련될 예정이다.

1층엔 상설 및 기획전시실과 열람실, 기록관 사무공간이, 2층엔 본회 및 관악회의 사무공간과 소형 강의실이, 3층엔 농생대 강의실과 대학신문 편집국이, 4층부터 6층까진 농생대 강의실 및 사업단과 아이디어 팩토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래 표 참조>

상설전시실엔 서울대 개교부터 현재까지, 모교의 역사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학교사(史)의 중심이 되는 사건, 그리고 모교를 빛낸 구성원들의 업적 등이 전시될 계획이며, 기획전시실엔 동문의 기부물품을 전시하는 기증자 컬렉션과 모교역사의 한 장면을 입체적으로 구현해 가상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리는 아이디어가 검토 중이다.

동문을 비롯한 관람객들로 하여금 기록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 기증, 정리, 보

존되는지 살펴보는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상 1층 로비와 2층으로 이동하는 계단 공간은 관람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최대한 개방성을 띠도록 구성했으며 4개의 개인용 캐럴(carrel)을 마련해 기록물 열람자 및 연구자를 위한 공간도 마련된다. 열람실 공간도 개개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모교 기록관은 준공 전 아직 미확보된 전시 공간 및 보존설비에 대한 예산 계획을 준비하는 동시에 역사기록물 전시 선별을 위한 정리사업이 한창이다. 학예연구사 등 핵심인력 확보를 위해 모교 인사교육과와 협의하고 있으며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모교 기록관은 2001년 9월 부속기관으로 출범해 2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나 수장고가 학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을 만큼 여건이 열악하다.

박홍식(서양사84-90) 기록관장은 “역사연구기록관 건립 및 이전을 통해 모교 기록관이 비로소 이름에 걸맞은 시설, 환경,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기록관이 학내외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자료 및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서울대 구성원 모두에게 정체성과 자부심을 부여하는 의미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역사연구기록관은 당초 내년 4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레미콘 자재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2개월여 늦춰질 전망이다. 나경태 기자

### 75동(역사연구기록관) 층별 용도 계획

구분	면적㎡	용도
6층	920.36	농생대 사업단 등
5층	923.04	농생대 아이디어 팩토리 등
4층	934.04	농생대 강의실 및 정보검색실
3층	1,098.20	농생대 강의실, 대학신문사 편집국 등
2층	1,389.42	소형강의실, 동창회 사무공간, 관악회 등
1층	1,553.03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열람실, 기록관 사무공간 등
소계	6,818.09	
지하층	2,019.96	대강의실, 기획전시실, 전시회랑, 영구보존서고, 유형별 서고, 기록물관리실 등
지하2층	2,051.98	주차장, 기계실, 전시실, 발전기실 등
소계	4,071.94	
계	10,890.03	

□ 지휘자 금난새씨의 어머니입니다. 그 인연으로 금난새씨와는 지금도 친하게 지냅니다.”  
-서울대 일본총동창회 회장도 말고 계신데요. 회원 수는 얼마나 되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통 모이지 못하다 작년에

모임을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25명 정도 모였죠. 현재 등록된 분은 130명 정도 되는데 연락되는 분들은 7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활성화를 위해 제가 노력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일본총동창회장으로서 일본과 한국 사이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

디어를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양국 정부가 민간에서 하는 다양한 교류를 막지 말고 가만히 지켜봐 주기만 해도 좋겠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자매도시가 참 많거든요. 분야별 학술회도 많고요. 경찰 등 공무원끼리의 모임도 있지요. 이런저런 이

## 문리대동창회

### 4·19민주평화상에 안성기 배우

문리대대학동창회(회장 김인규) 산하 4·19민주평화상 운영위원회가 4월 7일 제4회 4·19민주평화상 수상자로 안성기(사진) 배우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시상식은 4·19민주혁명 63주년을 맞는 4월 1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리며, 상금 5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권숙인(인류81-85 모교 사회대 학장) 심사위원장은 “4·19민주평화상은 ‘4·19정신’을 계승·확산시켜 보다 나은 미래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취지로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며 “안성기 배우는 5살에 배우로 데뷔해 평생 한국영화 발전에 헌신함으로써 한류의 기반을 다졌고, 1993년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을 시작한 이래 30여 년간 구호 활동을 펼치는 등 한국 문화발전 및 전 지구적인 류에 실천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성기 배우는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장, CJ문화재단 이사로서 재정이 필요한 문화단체 지원, 영화 연극 예술인 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 단편영화 제작지원사업, 필름게

이트 영화제 주최 등 문화예술 관련 공익사업을 주도했고 한국배우협회 이사장,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서 문화예술가들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존경받는 리더로 활약하고 있다.

4·19민주평화상은 2020년 4·19민주혁명 60주년을 맞아 문리대동창회에서 4·19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자유·민주·정의·인권·평화의 구현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을 매년 1명씩 시상하고 있다. 제1회 수상자엔 반기문(외교63-70) 전 유엔 사무총장, 2회 김정남(정치61-66)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3회 김영란(법학75-79) 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가 선정됐다. 안성기 배우는 최초의 비등문 수상자다.

## 관악회

### 하광룡 감사 선임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김종섭)가 3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 14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2022년도 결산이 승인됐고, 하광룡(법학76-80·사진) 법률사무소 원원 대표변호사가 신임 감사에 선임됐다.



무대학원,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AMP과정, 모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등을 수료했으며 대한제당 사외이사, 일진정밀 법률고문을 겸임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하광룡 동문은 모교 졸업 후 고려대 정보통신과정, 연세대 특허법

임기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2년이다.

## 관악경제인회 골프대회



지난 3월 29일 경기 고양시 뉴코리아CC에서 류진 풍산그룹 회장 초청 관악경제인회 골프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류진(영문78-83) 풍산 회장, 서병륜(농공69-73) 로지스윌그룹 회장, 김종훈(건축69-73) 한미글로벌 회장, 정팔도(AIP 1기) 흥안·코랜드 회장, 김인규(정치69-73)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 이송훈(건축70-74)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 회장, 심문규(언어71-75) 글로벌아시아 대표, 윤무영(FIP 14기) 중우 회장, 박영안(경영72-76) 태영상선 대표, 윤철주(AMP 64기) 우리그룹 회장, 주영섭(기계공학74-78) 모교 특임교수, 김형진(AIP 21기) 세호텔레콤 회장, 방기석(SGS 14기) 지비엠아이앤씨 대표, 이종철(ACAD 86기) 금조 회장, 박태훈(화학84-89) 넥스틴 대표, 임성빈(경영84-88) 골든오크 세무법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료 교류가 끊겼는데 코로나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양국 협력의 물꼬도 트였으니 본격적으로 교류가 재개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읽게 될 서울대 동문 선배들에게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어느 나라나 엘리트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럽을 보면 엘리트는 별도의 기관에서 육성되잖아요? 국가를 위해 사익은 버리라는 의미죠. 서울대가 한국에서는 그런 대학인데, 그에 걸맞게 큰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정리-김남주 기자

신임 대학원동창회장 인터뷰

# 환경대학원 50돌, 명사 초빙 포럼 만들 것

**환경대학원**

전의찬 (기계공학73-80·환경원85-96)  
세종대 석좌교수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2월 28일 열린 환경대학원 동창회 온라인 정기총회에서 전의찬 세종대 석좌교수가 제24대 동창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학부 졸업 후 전공을 살려 현대엔지니어링에 입사한 그는 발전소 보일러 설계팀에서 환경오염방지시스템을 맡았던 게 계기가 돼 1985년 모교 환경대학원에 진학했다. 어릴 적부터 자연에 관심이 깊어 물질문명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일을 매우 뜻깊게 생각했다고. 온실가스의 50% 이상을 보일러가 배출하는 까닭에 기후변화·탄소중립 분야에서 남다른 성과를 달성, 사단법인 한국기후환경원장, APEC 기후센터 이사장을 겸임하는 등 국내외에서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3월 29일 세종대학교에서 전의찬 신임 회장을 만났다.

“올해가 환경대학원이 개원하고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동문들은 모교에서 익힌 지식과 전문성 덕분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죠. 그러나 졸업 후 시간이 지나면서 동문과 모교 간 거리가 생겼고, 재학 당시 은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연결고리가 약해졌어요. 모처럼 학교를 찾아가도 아는 얼굴이 없으니 동창회 활동도 더 망설이게 됐죠. 최근 몇 년은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여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요. 저는 ‘동창회와 함께하는 모교의 새로운 50주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데

전 회장은 개원 50주년 기념 장학금 조성하고 건(정치56-60) 기후변화센터 명예 이사장, 김수현(도목80-84)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현수(산업공학82-86) 국토연구원장, 변창흠(경제83-88)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 환경대학원을 거쳐 간 동문 명사를 연사로 초빙하는 포럼을 구상 중이다. 역지로 동창회 모임에 오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만큼 동문 스스로 유익함을 깨닫게 하겠다는 뜻. 전 회장은 2012년 환경대학원 환경관리동창회 초대 회장을 맡아 ‘서울환경포럼’을 성공리에 개최, 동문과 재학생 100여 명의 참여를 끌어낸 바 있다.

“콘텐츠가 좋으면 참여하는 동문이 꽤 있을 겁니다. 박사 500여 명, 석사 3300여 명, 특별과정 수료 동문 1200여 명까지 합치면 우리 동창회 회원이 5000명이 넘어요. 2%만 와도 100명이죠. 좋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SNS를

통해 알리고, 유튜브로 현장을 생중계해 소통의 폭을 넓힐 생각이예요. 환경대학원장 및 보직 교수들을 초청하는 건 물론이고요. 동문과 동문, 동문과 모교 간에 더 단단한 화합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대학원은 학부 과정이 없어 다양한 학부 출신이 찾아온다. 인문대, 자연대, 사회대, 공대 등 교수들의 학문적 배경도 다양하다. 4차 산업혁명 들어 융복합, 통합 전공 등이 화제가 됐지만, 환경대학원은 시작부터 학제 간 융합 교육 형태를 띠었다. 우수한 교육 효과를 입증하듯 환경대학원 출신이 도시와 환경 분야 요직에 두루 포진해 있다. 학회나 세미나를 가면 어디든 환경대학원 동문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

“윤순진(사회85-89) 환경대학원 원장님이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으셨을 때 제가 기후변화위원장이어서 같이 일한 적이 있습니다. 50주년을 맞은 환경대학원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씀하셨죠. 환경대학원 안에도 여러 전공이 있어 우선 전공별 동창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행히 대학원 재학 시절 원우회장을 맡아 제 동기들만큼은 전공 구분 없이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를 연결고리로 차근차근 동문들의 참여를 끌어내야죠. 우리 대학원이 새로운 반세기를 시작하는 지금,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전지구적 과제가 됐습니다. 동문들이 힘을 합쳐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데 일조해야죠.”

나경태 기자

의대동창회



왼쪽부터 김풍명 함춘대상 수상자 부부, 임수흠 의대동창회장, 최병인 수상자 부부.

## 김풍명·최병인 동문 함춘대상

한규섭 회장 취임도



의과대학동창회(회장 임수흠)가 3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함춘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한규섭(72-78·사진) 씨 진료재단 대표의료원장이 동창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를 마친 임수흠(73-79) 전 회장은 명예회장에 추대됐다.

한 신임 회장은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이자 수혈진단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2019년 모교 의대 교수 정년퇴임 후 진단검사 전문의료기관인 씨젠의 료재단의 대표의료원장을 맡고 있다. 모교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등 대학과 병원에서 여러 보직을 경험했으며, 재직 교수로는 드물게 동창회 이사, 부회장 등으로 10년 넘게 참여해 회무에 밝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 회장은 취임사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학내외 동문들이 긴밀히 소통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모교와 동창회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서 의대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함춘대상의 영예는 김풍명(61-67) 전 명피부과의원 원장과 최병인(68-74) 모교 의대 명예교수 겸 중앙대병원 임상석좌교수가 안았다.

김풍명 동문은 1970년 WHO 장학생으로 선발됐으며 인도·필리핀·싱가포르 등지에서 나병 관리교육을 수료했다. 1978년 의원을 열어 2017년까지 재직했고, 현재는 강남구청 산하 사회복지기금인 ‘강남시니어 플라자’에서 진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최병인 동문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의학한림원 등 국내 13개 학술단체 종신 정회원이다. 최신 영상 기법을 이용한 소화기계 질환에 대한 연구, 연구업적을 통한 근거 기반의 의학교육 및 진료를 펼쳤다. 토고, 케냐, 우간다 등지에 초음파 연수를 지원했다.

음대동창회



음대동창회 정기총회에 신수정 명예회장을 비롯한 1959학번 동문 10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명예회장 여러 명 될 수 있게 회칙 개정

4년 만에 열린 정기총회

음악대학동창회(회장 정태봉)가 3월 20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정태봉(작곡72-80) 회장, 신수정(기악59-63) 명예회장, 최은식(기악85졸) 회장을 비롯해 동문 80여 명과 장학생 7명이 참석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4년 만에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59학번 원로 선배들이 테이블 하나를 짝 채워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태봉 회장은 개회사에서 “3년 동안 총회를 못 열었지만, 와중에도 장학금 수여식은 계속해 왔다”며 “오랜만에 열린 총회에 이렇듯 행사장을 가득 메워준 동문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수정 명예회장은 “저를 포함해 59학번 동기들, 80 넘는 사람들이 교통난을 뚫고 이렇게 왔다는 것에 감동을 느낀다”며 “모교가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모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명예회장은 제27

대 서울대총동창회 회장이자 최초의 예술인 회장으로 여러 행사를 더 알차고 풍성하게 개최해 총동창회의 위상뿐 아니라 음대동창회의 명예 또한 아울러 빛낸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한편 송경희(국악59-63) 동문은 2018년 3월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동창회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동창회 사업을 후원해 감사패를 받았다.

최은식 회장은 “작년 6월부터 학장을 맡았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선배들께서 쌓으신 음대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대 강의동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성을 모아주시길 부탁했다.

이날 총회에서 직전 회장 1명만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는 것에서 전임 회장 등 복수의 인사가 명예회장이 될 수 있게 회칙을 개정했다.

유민아(성악 2년)·이재원(작곡 2년)·안소현(기악 4년)·김재영(기악 3년)·윤정빈(국악 2년) 학생이 동창회 장학증서를, 유조기(기악 2년)·하병찬(음악 2년) 학생이 오정주 장학증서를 받았다.

치대동창회

## 양정강·고재승·김성열 자랑스러운 동문상



3월 15일 연건캠퍼스 치의학대학원 본관 6층 강당에서 열린 치대·치대원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참석 동문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정상철 회장 취임도



치대·치대원동창회(회장 한성희)가 3월 15일 연건캠퍼스 치의학대학원 본관 6층 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자랑스러운 서울대 치과인 동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성희(79-85) 회장, 권호범(89-93) 치의학대학원장 등 동문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양정강(58-62)·고재승(60-67)·김성열(61-67) 동문이 자랑스러운 서울대 치과인 동문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양정강 동문은 미국 노스웨스턴대 소아치과 M.S 이학석사를 취득하

고,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장, 국제로타리3850지구·마포로타리클럽 회장, APDF 부회장, 대한치과보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고재승 동문은 서울치대 학장, 대한기초치의학협의회장, 대한민국의학원 제4분과 회장, 한국약안면골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녹조근정훈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회 협회대상 학술상 등을 수상했다.

김성열 동문은 현재 미국 워싱턴주 밴쿠버에서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치대 100주년을 맞아 100만 달러를 모교에 기부한 바 있다. 김 동문은 영상을 통해 “영광스럽고 감격스럽다”는 소감을 전했다.

올해 국가고시 수석인 김성재(16-

23) 동문과 최우수졸업생인 양정은(16-23) 동문 및 이재환(본과1)·권재환(본과2)·이세령(본과3)·김우중(본과4) 등 동창회 장학생들이 표창장을 받았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정상철(82-88·사진) 명문치과의원 원장이 36대 동창회장에 취임했다.

정 신임회장은 대한약안면형성재건외과학회 정회원이자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KAO) 이사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간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분재조정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최근 14년 동안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인 ‘마론 윈드 오케스트라’의 단장으로서 60여 명의 단원을 지휘하고 있다.

미대동창회

4월 25일까지 예술의전당서 SNU빌라다르전

미대동창회(회장 권영걸)가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에서 'SNU빌라다르 2023'을 개최한다.

미대동창회와 사단법인 에스아트 플랫폼이 공동주최하고 본회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1946년 모교 개교 이후 원로세대부터 젊은 세대까지 동문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4월 18일 오후 4시엔 미술계 인사를 초대하는 축하 공연과 개막 행사가 진행된다.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빌라다르는 1953학년부터 2019학년까지 총 20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해, 모교를 빛낸 선배들과 모교를 갓 졸업하고 곧 한국 미술계의 주역이 될 후배들이 만나는 뜻깊은 자리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최근 모교 졸업 전시 때 동창회장상(베리타스미술상)을 받은 동문 작가들의 '제2회 베리타스미술상전'이 함께 열린다. 베리타스미술상은 유망한 젊은 작가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미대동창회에서 2021년 제정한 상이다.

전시회 참가작가의 소품전이 마련돼 전시장을 방문하는 관객들에게 작품 소장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모교 동문에게는 특별할인의 혜택도 주어진다. 월요일은 휴관.

농생대동창회

AFP유통, 네이버 푸드윈도 입점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서병륜) 산하 아그로푸드플랫폼(AFP)이 4월 3일 제75차 추진위원회 화상회의를 열고, AFP센터 및 AFP유통 추진 경과에 대해 발표했다.



농생대동창회 AFP화상회의 모습.

정봉진(농학73-77) AFP센터 대표는 지난 3월 브로콜리 새싹분말 파트너 회사인 '에코월드프림'과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AFP센터는 브로콜리 새싹분말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해 그동안 브로콜리 새싹 재배 회사들을 물색해 왔는데 그중 1개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 정 대표는 추가로 4개 회사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년 동기 대비 50.8%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AFP유통은 농생대동창회의 우수 농산물 쇼핑몰 '스누아몰'을 운영할 뿐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도 입점했으며, 지난 3월 처음으로 스마트스토어의 매출이 스누아몰을 넘어섰다. 최근엔 산지 직송, 지역 명품만 취급하는 네이버 '푸드윈도'에도 입점 성공했다.

서재형(농학82-86) AFP유통 대표는 "지난 3월 4일 기준으로 누적 거래액 2억5000만원을 달성했다"며 "이는

AIC동창회



3월 16일 개최된 AIC동창회 정기총회 겸 신년교례회에서 참석 동문들이 파이팅을 외쳤다.

총회 겸 신년회 70여 명 참석

동문 70여 명과 본회 이승무(경제72-76-77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창의혁신공공리더과정(AIC)동창회(회장 박규홍)가 3월 16일 서울 신길동 공공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지난 3년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중단 없이 동창회 총회와 골프대회, 소모임을 통해 교류를 계속해 왔다"며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솔선 덕분에"이라고 말했다. 이어 "AIC 과정의 '창의융합정신'이야말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큰 무기"라고 하면서 "AIC 정신으로 무장해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행사안내문에 QR코드를 넣어 참가소감을 온라인으로 접수 받기도, 동창회 오픈채팅방에 초대하기도 했다. 참가소감을 온라인으로 적어 제출하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등 모임의 재미를 더했다. 박규홍(11기) 회장이 직접 테이블을 돌며 응모방식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엔 박 회장을 비롯해

안양지부동창회

재적인원 70% 참여, 훈훈했던 정기총회



3월 21일 안양 인덕원 어반호텔에서 열린 안양지부동창회 정기총회에 원로 동문부터 신입 회원까지 46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안양지부동창회(회장 장영란)는 3월 21일 인덕원 어반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재적인원 70명 중 46명이 참석해 역대 행사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장영란(국악75-80) 회장, 신중대(행정65-72) 고문, 김창범(의학70-78) 명예회장을 비롯해 이해정(약학46-49)·김동선(독문57-64)·김무조(전기공학57-63) 동문 등 동창회 원로와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 심재철(영어교육77-85)·이석현(법학71-78) 동문 등 다양한 동문이 함께했다.

이날 부회장에 김홍선(해양77-81)·강선주(치의학86-92)·조태연(약학90-95) 동문, 감사에 문병상(사법81-85) 동문, 사무차장에 문태영(산업디

자인89입) 동문을 위촉했다. 또 조성무(미학82-95) 동문 등 7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총회 이후 관례대로 모든 동문이 돌아가며 자기소개와 근황을 얘기했다. 친밀한 분위기 속에 고민거리, 자랑거리 등이 허물없이 오갔다. 김무조·이정용(경영62-66)·최종고(법학66-70)·김정특(농화학76-83)·고희정(식품영양87-91) 동문 등은 첫 인사를 했다. 김정특 동문은 "동창신문에서 장영란 회장님 인터뷰를 보고 찾아왔다"고 말했고, 과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고희정 동문은 "동창회에 와보니 마음 훈훈하고 나의 소속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한의대에도 서울대 동문이 많

는데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96세인 이해정 동문이 마이크를 잡아 참석자 전원이 기립박수로 맞이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계 원로인 이동문은 "피겨를 할 의향이 있는 가족을 두신 분은 저와 상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운기 사무국장은 투병 중 참석한 장우형(기약72-77) 동문에게 격려를 부탁하기도 했다. 시종일관 화기에 애했던 행사는 박영린(기약71-78) 동문의 지휘에 따라 교가를 부르며 마무리했다. 올해 설립 15년차인 안양지부동창회는 안양, 과천, 평촌, 의왕, 군포, 산본 등 범 안양권에서 활동하는 동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수진 기자

AMP동창회

김병도·박철순 교수, 자랑스러운 교수상

손경식 CJ 회장, 특별공로상

최고경영자과정(AMP)동창회(회장 윤철주)가 3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제23회 자랑스러운 교수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윤철주(64기) 회장, 김상훈(경영84-88) 경영대학장을 비롯해 동문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김병도(경영78-82)·박철순(경제78-82) 교수가 자랑스러운 교수상을, 손경식(법학57-61-23기) CJ그룹 회장이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자랑스러운 교수상 수상자에게

각각 상금 1000만원이, 특별공로상 수상자에게는 순금 메달이 부상으로 전달됐다.

김병도 교수는 모교 경영대 졸업 후 뉴욕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시카고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모교 경영대 학장, 카네기멜론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 한화생명·제일기획 등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박철순 교수는 모교 경제학과 졸업 후 컬럼비아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시아인 최초로 영국 런던경영대학원에 정식 교수로 부임했다가 1996



자랑스러운 교수상 박철순(왼쪽)·김병도 교수(오른쪽)와 특별공로상 손경식 동문(가운데).

년 모교 경영대 교수로 왔다. 신한은행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다.

손경식 동문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동창회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고 발전을 위해 조언하는 등 AMP과정 및 동창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문합창단

창단 15년 만에 본격적인 정기공연



모교 동문합창단이 3월 11일 첫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단원들이 무대 위에서 열창하는 모습.

모교 동문합창단(단장 신동수)이 3월 11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본회와 삼익악기가 후원한 이날 공연엔 정태봉(작곡72-80) 음대동창회장과 본회 이경형(사회66-70) 상임부회장, 이승무(경제72-76) 사무총장, 송우업(체육교육79-83) 사무차장 등이 함께했다.

원종수(성악85-89) 동문이 지휘를, 이윤석(작곡17졸) 동문이 하모니카 반주를, 박주미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반주를 맡아 '목련꽃', '산유화', '인연',

'부끄러움' 등 10여 곡을 들려줬다. 동문합창단은 3월 24일 열린 본회 정기총회에서 축하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신동수(작곡78-84) 단장은 "창단 15년 만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정기연주회를 열었다"며 "청중 동원도 우리의 연주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청중과 함께 부른 안코르곡 '아침이슬'은 합창단에도 박찬 감동을 선사했다고. 신 단장은 "총동창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광고 협찬 부탁드립니다

총동창신문 광고 대행 외주 업체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동창회 자체적으로 광고를 수주합니다. '서울대총동창신문'은 모교 출신 중견 언론인 25명의 자문을 받아, 매월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광고 협찬 안내서를 참고하셔서, 기업 홍보 및 상품 광고를 위해 많은 이용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협찬 안내

1. 회 지 명 : 서울대총동창신문
2. 발행부수 : 종이신문 5만부
3. 광고마감 : 매월 말일
4. 발 행 일 : 매월 15일자
5. 판 형 : 베를리나판(20·28면)
6. 연락처 및 이메일 : 02-886-2219, news@snuu.or.kr
7. 담 당 자 : 김남주 편집장

구분	규격	광고료
전면	299mm×432mm	600만원 (맨 뒷면)
		500만원 (내지)
절반	299mm×216mm	300만원
	299mm×125mm (가로형)	
1/4면	175mm×210mm (세로형)	200만원

## 동문 서비스1: 제휴 호텔·리조트·펜션 등

동문과 동문가족(배우자와 이들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이 제휴 호텔 리조트 펜션 등 이용 시,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평생 회비 또는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 대상, 회원우대증과 동반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라마다 프라자 제주 호텔

### 한국교직원공제회·The-K호텔 앤 리조트

● 일반이용시 (단위: %)

구 분	The-K호텔 앤 리조트				비 고
	서울	경주	지리산	설악산	
객실	40	주중(50) / 주말(40)	50	50	성·비수기 구분 없음
식음료	10	-	-	-	식사 및 음료 할인
휘트니스	50	5000원 할인	30	-	서울호텔은 투숙시 할인
세미나	30	-	-	-	회의장 렌탈료 할인

구 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비 고
	객실	주중(60) / 주말·성수기(50)	
식음료	10		식사 및 음료 할인

※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중복 할인 불가)

● 휴스테이(롱스테이) 이용 시 (단위: 원/일)

구 분	The-K호텔 앤 리조트			The-K 서드에이지
	설악(20평)	지리산(20평)	경주(일반실)	
3~7일	55000~90000	90000~130000	95000~120000	30000
8~30일	50000~85000	50000~90000	80000	

※ 호텔 및 롱스테이 이용 관련 유의사항

- 평형별, 요일별, 숙박일자 및 예약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비·성수기 일자 및 요금 매년 변동
-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 대상기관 회원 및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회원우대증 등) 제시 필수

※ 예약및문의: 서울 02-571-8100, 경주 054-745-8100, 지리산 061-783-8100, 설악 033-639-8100, 제주 064-729-8100

- 서드에이지: 입소 시 보증금의 5% 할인 (예약: 055-530-8100)

- 예다함상조: 가입 시 최종 8회분 납입 면제, 단, 전화 상담 가입에 한함 (예약: 1566-6644)

### 엠베서더 호텔 그룹

구 분	객실	식음료	연회	예약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	10%	10%	5%	02-567-1101
엠베서더 서울 풀만	10%	10%	-	02-2275-1101
경원재 엠베서더 인천	10% 주중(일-목)	투숙시 10% Room svc 제외	미팅룸 대여 15%	032-729-1101
이비스스타일엠베서더강남	10%	10%	10%	02-3011-8888
이비스스타일엠베서더명동	10%	10%	10%	02-6020-8888
이비스 엠베서더 명동	10%	10%	10%	02-6361-8888
이비스 엠베서더 인사동	10%	-	10% 대여에 한함	02-6730-1101

※ 상기 요금은 정규요금을 기준으로 한 할인율이며, 중복 할인은 불가함(객실은 홈페이지에서 code[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입력 후 예약 가능, 식음 및 연회는 전화 사전예약 필수,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호텔 내 직영이 아닌 임대 업장 및 외부 서비스의 경우 할인 대상에서 제외

### 라마다 군산 호텔

(단위: 원)

객실타입	정상요금	주중(일-목)	주말(금·토)	연휴/성수기
스탠다드 더블/트윈	220000	90000	110000	125000
스탠다드 패밀리트윈/디럭스더블	242000	95000	120000	135000
디럭스패밀리트윈/온돌	264000	105000	130000	145000
디럭스 스위트더블/패밀리 스위트	450000	180000	220000	250000

연휴/성수기 기간안내  
2023년: 1/20~1/23, 4/28~5/1, 5/4~5/7, 6/2~6/5, 7/21~8/19, 9/27~10/2, 10/6~10/8, 12/22~12/24, 12/29~2024년 1/1

※ 세금, 봉사료 포함,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및 중복 할인 불가,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063-441-8000

### 하늘계곡연수펜션

(단위: %)

구 분	객실	식음료	세미나	비 고
총동창회 할인율	40	10	30	- 객실: 성·비수기 구분 없음 - 세미나: 회의장 렌탈료 할인

※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및 중복 할인 불가,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043-653-2013, www.skyp.co.kr

### 고급 식당 할인 혜택

● 필경재 (한정식 전문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

※ 예약 및 문의: 02-445-2115 (서울 강남구 수서동 광명로 205)

● 슈타인도르프 (수제맥주 전문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

※ 예약 및 문의: 02-422-9000 (서울 송파구 오금로15길 11)

● 램스에비뉴 (양고기 음식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음료 제외)

※ 예약 및 문의: 02-303-8980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 결혼정보업체 듀오 10% 할인

● 동문이 가입할 시 10%, 동문 가족은 5% 할인 적용

※ 문의: 1577-8333

## 동문 서비스2: 건강검진 협약병원

동문과 동문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은 협약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최대 50%까지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평생 회비 또는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 대상, 회원우대증과 동반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 10~30% 감면

서울대학교병원	02-2072-3333	건강검진 10% 우대, 배우자의 부모 제외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02-2112-5500	건강검진 10% 우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588-3369(내선2번)	건강검진 10% 우대, 배우자의 부모 제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02-870-3333(내선2번)	건강검진 10% 우대
국립암센터	031-920-1212	암검진 10% 우대
강남세브란스병원	1899-7588 ydmchc@yuhs.ac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1588-8668(내선1번)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고려대학교구로병원	1577-9966(내선2번)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배우자의 부모 제외
고려대학교안암병원	02-920-5106, 5491, 6677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배우자의 부모 제외
대림성모병원	02-829-9357, 9359, 9317	건강검진 및 비급여 진료 20% 우대
한국원자력의학원	02-970-1791-3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장례식장 15% 우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031-910-7027-8(검진) 031-910-7000(비급여)	건강검진 10% (1-2월 30%) 우대 비급여진료 10% (20만원 한도)
명지병원	031-810-6383	건강검진 20~30% 우대
제천 명지병원	043-640-8450/8451	비급여진료 10% 우대
인천사랑병원	032-457-2800	(재료대 및 약제비 제외)
중앙대학교병원	6299-2114	기본건강검진 20%, 치과 비급여진료 10%, 장례식장 안치료 및 빈소 10%(상조회 가입한 경우 5%)
CM병원	02-2635-8275 070-4698-7817	종합검진비 10%(1-3월 20%), 비급여진료 10%
아주대학교병원	031-219-4000	종합검진비 10%(1-3월 20%)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070-4665-9137	종합검진비 10%
화홍병원	031-8021-6947-8(검진) 031-8021-6958(비급여)	종합검진비 20% 비급여진료 10%

### 최대 50% 감면 (일반검진 25만원 / 종합검진 35만원 / 정밀검진 50만원)

구로성심병원	02-2067-1500
메디플라워 헬스케어	02-3475-7100(내선1번)
차용건진센터	삼성 1800-7750(내선1번) 35-50만원 청담차용(프리미엄) 02-3015-5001 80-100-150-200만원
한국의학연구소(KMI)	1599-7070 본원(광화문), 여의도, 강남, 수원, 대구, 부산, 광주
한신메디피아	02-596-4565(내선2번), 3476-7760

## 동문 서비스3: 경조 서비스

평생 회비 또는 당해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본인 부담)

### 화환·조화, 경하기·근조기

구 분	근조기	경하기	조화·화환	영정바구니
서울	25000원	30000원	80000원 (전 지역 동일)	100000원 2개 세트 (전 지역 동일)
서울근교	30000원	38000원		
수도권	38000원	42000원		
경기외곽	42000원	45000원		
지방	48000원	48000원		
제주도	80000원	80000원		

● 신청\_ 경조 서비스 신청

신청 및 문의: 전화 02-702-2233

● 입금\_신청 후 비용 계좌로 입금

계좌번호는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 배송\_입금이 확인되면 3~4시간 안 배달

도서지역과 교통불편지역은 요금 및 소요시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회원우대증을 제시하시면 우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동창회 평생회비 또는 당해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님은 회원우대증을 모바일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휴사 이용 시 본 우대증을 제시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모바일 회원 우대증 발급방법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발급 화면으로 연결

또는 홈페이지 www.snua.or.kr 첫 화면 하단 「회원우대증」

배너 클릭 (회원가입 필요)

\*스마트폰에서 접속하시면 편리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가입을 원치 않으면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우대증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총동창회 사무처 대표전화 02-702-2233 문자전용 1877-2039



【회원우대증 바로가기】



## 5~8월 행사 안내

행사 문의: 02-702-2233

### 나눔 가족음악회

일 시: 5월 10일 (수) 오후 7시 30분

장 소: 잠실 롯데 콘서트홀

지휘 및 해설: 금난새(작곡66-70) 음악감독

연 주: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합 창: 서울대 동문 합창단·서울대 OB합창단

관람 방법: 협찬금을 납부하시는 동문님께 초대

교환권 증정

양식에 맞춰 문자메시지(1599-7704) 또는 이메일(member@snua.or.kr)로 신청 후 협찬금(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납부

-신청양식: ①제목:나눔 가족음악회 ②이름 ③단

과대학·입학연도 ④좌석 등급 및 매수 ⑤받으실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협찬금 계좌: 우리은행 1005-401-137376

(예금주:서울대총동창회) \*총동창회 홈페이지

www.snua.or.kr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협찬금을 납부하신 동문님께 초대교환권을 등기

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공연 당일 공연장 8층 매표소에서 좌석표로 교환

하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좌석으로 초대교환권이 초기에 매진될

수 있습니다.

·대량구매(100만원 이상)를 원하실 경우, 동창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님께서 납부하신 협찬금은 분회 사회공헌

위원회를 통하여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할 예정이

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 의: 대표전화 02-879-8209,

문자전용 1599-7704

### 수요특강

일 시: 5월 24일 (수) 오전 7시 30분

장 소: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강연자: 손인주 서울대 사회대 교수

주 제: 미래 한국의 정체성과 전략

참가비: 2만원 (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5월 1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

### 조찬포럼

일 시: 6월 8일 (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플라자호텔 LL층 그랜드볼룸 (시청 앞)

강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장

주 제: 한국 노동 현실과 법치주의 노동 개혁

참가비: 5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 수요특강

일 시: 6월 28일 (수) 오전 7시 30분

장 소: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강연자: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

주 제: 최초의 질문: 기술선진국의 조건

참가비: 2만원 (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6월 1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

### 등산대회

일 시: 6월 하순

산행지: 미정

### 바둑대회

일 시: 7월 2일 (일) 오전 9시 30분

장 소: 관악캠퍼스 농생대 제3식당 (75-1동)

참가비: 2만원

### 수요특강

일 시: 8월 23일 (수) 오전 7시 30분

장 소: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강연자 및 주제: 미정

\*8월 1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

### 동문 나눔골프대회

일 시: 8월 28일 (월) 오후 예정

장 소: 렉스필드 CC (경기도 여주)

참가비: 50만원(예정)

### 등산대회

일 시: 8월 하순

산행지: 미정

# “인간은 갈 곳 있기에 방황하는 존재”

## 수요특강

전영애 (독문69-73)

모교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여백서원 원장

3월 22일 오전 7시 마포 본회 장학빌딩 2층. 수요특강 연사인 전영애 동문이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다. 안에서 꺼낸 것은 다양한 버전의 ‘파우스트’들. 커다랗고 목직한 영인본과 손때 묻고 색인이 빼곡하게 붙은 옛 책, 다양한 괴테 번역서까지 ‘동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손수 강연장에 펼쳐 놓았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괴테가 1832년 3월 22일에 죽었습니다. 저는 어제(3월 21일) 태어났습니다.” 괴테 연구에 평생을 바친 그다운 서두였다. 전 동문은 최근 경기도 여주에 지은 ‘여백서원’에서 괴테 전집 번역에 홀로 매진 중이다. 괴테의 시와 소설에 대해 무궁무진 할 말이 많은 그지만 이날은 ‘파우스트’에 집중해 ‘파우스트의 21시간 완본판 공연’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기가 막힌 책입니다. 저는 40년을 읽고 번역했지요. ‘파우스트’를 모르는 분이 없지만 다 읽으셨어도 이상하죠. 연극 대본이거든요. 자연과학, 철학, 논리학이 많은 경험에서 하나의 공리를 추출하는 것이라면 문학은 거꾸로입니다. 1만2,111행으로 풀어진 것, 이 한 문장입니다.”

장장 60년간 괴테가 쓴 ‘파우스트’를 압축하는 문장 하나를 화면에 띄웠다.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통상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는 번역으로 익숙한 문장이다. 전 동문은 독일어 ‘streben’이 알고 하는 ‘노력’보다 몰라도 생겨나는 ‘마음속의 솟구침’을 뜻함에 주목해 번역했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면 비문이지요. ‘지향이 있다’는 건 갈 곳이 있다는 것이고, 갈 곳이 있으면 똑바로 가면 되는데 왜 방황을 할까요? 이 문장이 주는 위트가 굉장하니까.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어딴겠습니까. 편안하고 값싸게 ‘괜찮아, 잘 갈 거야’ 위로 받으면 아마 잊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황하는 건, 의식하든 안 하든 내 마음 속에 갈 곳이 있고, 솟구침이 있기 때문이란 거죠. 문학은, 글썽요. 복숭아 같아요. (전체를 요약하는) 이 문장은 복숭아 씨인데, 시고, 달고한 과육들도 문학의 육질이지요.” ‘파우스트’의 주인공 파우스트는 ‘하늘에선 가장 아름다운 별을, 땅에서는 모든 최고의 쾌락을 맛보고 싶어 하는 인간’이다. 온갖 학문을 섭렵하고 회의에 빠진 파우스트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하고 영혼을 팔아 벌어지는 일들이 줄거리다. 이어 그는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힌 선한 인간은 바른 길을 잘 의식하고 있다’는 문장을 띄웠다. “악인과 선인을 너무 쉽게 구분하는 우리와 달리 인간의 선근(善根)을 본 것, 포용력이 어마



괴테 ‘파우스트’ 강의에 깊은 공감 여백서원 학장 ‘괴테 마을’ 조성 꿈

어마하다”고 소개했다. “‘파우스트’의 소재 자체는 대단히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흥부 놀부전같이 오래 전승된 얘기, 기독교권의 권선징악 얘기도. 파우스트라는 욕심 많은 인간이 살았고, 영혼을 팔아 24년간 복락을 누리고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인데, 괴테는 스위치를 하나 딱 틀어서 우리 시대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스위치가 뭐냐면, 24년간 내기를 하게 만들어요. 파우스트가 만족해서 ‘스톱’ 할 때까지 메피스토펠레스가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우스트’가 1만2,111행이 됐죠. 항상 가져도 모자라고 부족한 현대인을 200년 전에 앞서서 본 거예요.” 2부만 5막짜리인 ‘파우스트’의 완본판이 독일에서 공연된 적 있다. 전 동문은 그 공연을 이정표 삼아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2부 2막에 등장하는 인조인간 호문클루스는 현대의 AI와 개념이 같다고 소개했다. “괴테가 200년 전에 생각했던 인조인간은 정신의 정수입니다. 육신이 없어요. 200년 전엔 이해받지 못하리라 생각했을 텐데 우리 시대에 훨씬 더 시사성을 갖게 됐죠.” 전 동문은 “‘파우스트’는 연극 대본인 만큼 역할을 나눠 같이 읽으면 정말 재밌다”고 했다. “우리 시대 서원을 만들어보고 싶어 지었다”는 여백서원에서 정기적으로 ‘파우스트’ 독회가 열린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일반인에게

개방한다. 1만㎡뜰에 모교 도서관 앞 하수구에서 발견한 느티나무 싹을 비롯해 버려진 나무들을 옮겨 심었고, “젊은 날 괴테의 집과 정원 등을 꾸며 ‘괴테 마을’을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까지. 한 사람이 실현해 가는 웅숭깊은 꿈에 객석에 선 연신 감탄사만 흘러나왔다. 질의응답 시간엔 선진 전우순(정치47-52) 동문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60대 후반부터 91세까지 혼자 사시면서, 90세 가을까지 매년 에베레스트에 가셨습니다. 드러누우면 자녀들에게 집 된다며 45kg 몸무게 20kg 배낭 지고, 5000원 짜리 조끼 입고 날아다니셨죠. 한 학자도, 서예가도 아닌데 말년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도산서원, 소수서원 원장을 하셨던 증조부의 문집을 국역하셨어요. 남의 나라 글은 줄줄 읽는 제가 한문을 몰라 못 읽는 게 안타깝다면 서원에서 육필을 보실 수 있어요. 아버지 호가 바로 ‘여백(如白)’이십니다.” 강연 후에도 참석자들은 전 동문이 가져온 책들을 들추어 보느라 한참을 머물렀다. 한 동문은 “다가오는 주말 여백서원에 가기로 했는데 마침 강연이 열려서 왔다. 어디서든 이런 강의는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쏟아지는 방문 문의에 전 동문은 “해의 일정으로 서원을 자주 비우니 미리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회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전 동문이 번역한 괴테의 ‘서·동시집’을 증정했다. 박수진기자

# “감성지능 높으면 일도 공부도 더 잘한다”

## 피터 샬러비 예일대 총장 특강

### EQ(감성지능) 개념 공동창시 나이 들수록 감성지능 높아져

“감성이 사고를 방해한다는 오래된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감성은 적응적이고, 기능적인 것이 됐습니다. 주의를 집중시키고,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행동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세상에서 살아남도록 도와주죠.”

3월 24일 오전 9시 30분,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을 가득 채운 청중 앞에 피터 샬러비 예일대 총장이 섰다. “뛰어난 심리학자이자 사회과학자, 교육자”라고 소개된 그는 ‘EQ’로 잘 알려진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개념의 공동 창시자다. 스탠퍼드대 졸업 후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예일대에서 교수로 재직해 왔고, 2013년부터 10년째 예일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제협력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그는 감성지능을 측정하는 방법과 다양한 상황에서 그것이 예측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는 두려울 때 더 잘 달리고, 슬플 때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도 서술된 것이다. 감성을 지능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학계 주장도 일찍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 그가 공동 연구자와 감성지능의



개념을 발표했을 때 세상에 바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투고하는 저널마다 게재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아이디어가 말도 안 된다고들 했죠. 작은 저널에 실렸지만 5년간 한 번도 인용되지 않았어요.” 뉴욕타임스 저널리스트 대니얼 골먼이 베스트셀러가 된 책에 그 논문을 인용하면서 감성지능은 IQ 못지않게 뜨거운 화두가 됐고, 감성지능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는 감성지능을 네 가지 기능으로 정의했다. 자기 감정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관리하고, 생각을 명확히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을 이용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의 집합이기에 지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주고, 세상과 우리의 상호작용을 돕습니다.

IQ와는 다른 방식으로 배울 수 있죠.” 개인차가 커서 연구가 어려운 감성의 측정을 위해 그와 연구진은 MSCEIT라는 검사 도구를 개발했다. “MSCEIT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연인, 배우자, 파트너와 관계가 더 좋았고요. 학교에서도 싸움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은 공감적인 사람들로 평가됐죠.” 이후엔 다양한 환경에서 감성지능이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도 살펴봤다. 회사에서 MSCEIT 점수가 높은 직원은 리더십 있고, 스트레스를 잘 견뎌으로써 긍정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공적인 직장생활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샬러비 총장은 “낮은 감성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적 딜레마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감성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주의력 결핍을 보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감성지능은 교육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일대 감성지능센터는 감성지능을 개발하는 ‘RULER’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행동과 학업 성취에 대한 영향력을 연구하고 있다.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감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잘 사용함에 따라 세상 사는 게 더 유리해지니까요.” 그는 문화권별 감정 표현 차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은 “AI가 일터에 도입되고, 인간과 상호작용이 점점 줄어드는 환경에서도 감성지능 개념이 유효한지” 물었다. 그는 “AI가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꾸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두려워 말고 새로운 도구로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학생이 “한국에서 남자는 삶에서 단 세 번 운다는 말이 있다”고 운을 떼자 객석은 웃음을 터뜨렸고 샬러비 총장도 미소를 지었다. “이런 감정 표현의 억압이 감성지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가”란 질문에 그는 “때로 감정 조절은 어떤 일을 지속하는 데 유용한 기술이다. 아마도 소년들에게 더 요구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예일대 학생들은 평균보다 약간 낮은 감성지능 점수를 받습니다. 아이비리그에 오기까지 경쟁이 너무 심해서 감정의 억제가 필요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젊기 때문입니다. 감성지능의 훌륭한 점 중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인생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감성지능을 더욱 높여줄 겁니다.” 그는 “총장이 되면서 연구에 대해 강의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강의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어 기쁘다”는 소감을 말했다. 강연 후엔 무대 위 올라온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셀카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박수진기자

# 모교 현대언어학, QS세계대학평가 15위

화학공학 17위, 사회정책 20위  
30위권 내에 13개 분야 선정

영국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최근 발표한 '2023 QS 세계대학 학문분야별 평가'에서 모교 37개 전공이 50위 내에 올랐다. 현대언어학은 모교 전공 중 가장 높은 15위를 기록했다.

현대언어학은 라틴어·그리스어 등 고대 언어와 구별되는 언어를 공부하는 학문으로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영어를 제외한 언어 관련 전공이 해당된다. 모교는 이들 현대 언어 관련 학과를 다양하게 두고 있고, 별도 학과가 없는 일본어·중국어·동남아시아 언어도 아시아문명학부에서 다루고 있다.

화학공학(17위), 사회정책·관리(20위)도 20위 안에 들었다. 지난해 13위로 모교 전공 중 최고 순위였던 스포츠 관련학도 20위를 기록했다. 컴퓨터공학은 35위에서 32위로 소폭 상승했다.

45위를 기록한 영문학은 지난해보다 18계단 올라 가장 상승폭이 컸다. 환경과학은 지난해 44위에서 32위로 12계단 올랐다. 순위에 없었던 개발학은 올해 37위로 진입했다. 의학·간호학·생명과학 등이 포함된 의학 분야에서 아시아 대학 중 가장 높은 28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QS 학문분야별 평가는 올해 54개 전공을 놓고 세계 대학을 평가했다. 올해 데이터사이언스, 미술사, 마케팅 전공이 추가됐다. 하버드대는 14개 과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평가 지표는 △학계 평판도 △교용주 평판도 △논문당 피인용도 △H-인덱스(교수당 논문 수·인용 빈도)와 △국제 연구협력 항목 등 5개로 전공 분야마다 반영하는 비중이 다르다. 지구·해양과



모교 관악캠퍼스 정문 광장 전경.

사진=모교 소통팀

## QS 세계대학평가 학과별 순위

현대언어학	15	물리/천문학	33	고고학	47
화학공학	17	교육학	34	수리학	49
사회정책/행정	20	커뮤니케이션학	37	간호학	49
스포츠 관련학	20	개발학	37	인류학	51-100
재료과학	22	의학	37	지구해양과학	51-100
기계/항공공학	26	경제/계량경제학	38	지질학	51-100
화학	27	사회학	38	지구물리학	51-100
약학	27	농/임학	40	역사학	51-100
건축학/건설환경	28	생명과학	40	공연예술	51-100
전기/전자공학	28	회계/재무학	41	철학	101-150
예술/디자인	29	경영학	41	심리학	101-150
지리학	29	통계학	42		
언어학	30	영문학	45		
컴퓨터공학	32	법학	45		
환경과학	32	정치학	45		
토목/구조공학	33	신학·종교학	45		
치의학	33	수학	46		

학의 경우 학계평판도가 40%, 국제연구협력 부문 평가가 10% 반영됐지만, 고고학은 학계평판도가 70% 반영되고 국제연구협력은 반영되지 않았다.

## ‘서울대생은 어떻게 살까’ 30년 종단연구

### 학생 500명 2년 주기 조사

모교가 500여 명의 재학생을 30년 이상 관찰하는 종단 연구에 착수했다. 서울대 학생의 생애주기를 따라가면서 입학 후 학교생활은 어떤지, 졸업 후엔 어떤 삶을 사는지 장기간 추적 연구를 진행한다. 모교 학생들의 성장 과정과 성공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재학생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활용한다는 취지다.

이번 연구의 모티브가 된 것은 하버드대의 '2학년생 268명 생애 연구'다. 하버드대는 1938년 당시 2학년에 재학중이던 남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시작해 70년간 종단 연구를 펼쳤다. 2009년 마무리된 연구 결과를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펴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모교는 대학혁신센터 주도로 지난

해부터 종단 연구를 준비해 왔다. 지난 10월엔 예비 조사도 진행했다. 앞으로 매년 신입생 중 학생 패널을 모집해 2년 주기로 삶을 추적하게 된다. 매년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고, 5~10년 내에 종합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이 목표로 알려졌다.

그간 모교는 학내 기관의 설문조사, 상담기관의 상담 내용 등을 통해 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산발적으로 파악해왔다. 입학 이후 학업성취도를 조사해 입시 전형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있었지만 분부 차원에서 대규모의 학생을 장기간 일관되게 관찰한 적은 없었다. 본격적으로 종단 연구를 시작하면 입학처와 중앙도서관 등 학내 기관에서 데이터를 공유받아 입학 전형과 출신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읽은 책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 소아과 전문의 14명, “어린이 곁 지키겠다”

소아청소년과의 위기가 대두된 가운데 지난 2월 모교 어린이병원의 젊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각오를 다지며 쓴 글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전공의 수련 과정을 갖 마친 전문의 14명이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께 드리는 감사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제작한 배너 글이다.

어린이병원 출입구에 설치된 이 배너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저희의 가장 큰 선생님이었다”며 “소아청소년과의 위기라는 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저희는 늘 어린이들의 곁을 지키고 돌보겠다”, “같은 길을 걷는 후배들에게 그동안 배운 것을 나누는 일에도 힘쓸 것을 약속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여기에 최근 ‘서울대에서 치료받



지난 2월 모교 어린이병원에 소아과 전문의 14인이 만든 배너가 설치돼 화제를 모았다.

는 아기 엄마'라고 밝힌 한 보호자가 “이런 위기 속에서도 기꺼이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고, 아이들을 섬실껏 돌봐주셔서 감사하다”는 쪽지를 배너에 남기기도 했다. 이후 최은화 어린이병원장과 소아청소년과 교실에서 감사의 메모로 화답했다.

# “외부 인사도 총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해야”

## 서울대 부문별 중장기 발전계획 ⑦ 대학 운영체제(마지막회)

### 총장 연임 관련 규정, 개정 완료 이사회 구성 개방성 제고해야

“우리 구성원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다만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불신에서 비롯된 제도와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학내 구성원이 잠재력을 펼치려면 제도와 환경이 중요하다는 유희림 총장 취임사의 한 구절이다. 모교가 수립한 교육·연구·학생지원·국제화·멀티캠퍼스·재정 등 부문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실현하려면 대학 운영 체제의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발전계획의 마지막 장은 ‘시너지를 창출하는 성숙한 대학운영체제의 확립’이다.

발전계획은 모교가 대학본부의 조정 역할 부족으로 사회에 필요한 교과목을 적기에 신설하지 못하고, 교육 단위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단기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조직 운영과

대학 문화 또한 새로운 교육제도 설계와 사회에 필요한 연구과제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은 총장선출제도 개선이다. 모교 총장선출 제도는 직선제에서 2012년 법인화 이후 26대 총장부터 이사회에 의한 간선제로 바뀌었다. 몇 차례 규정 개정을 통해 교직원, 학생 등 교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선제적 성격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발전계획은 △현행 선출과정이 교외 인사에 불리한 점 △후보자 선출과정의 대표성 문제 △후보자 선출 이후 공약추진과 점검 및 4년 단임제의 한계를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발전계획은 “장기적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 연장보다 규정을 정비해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 더 실행가능성이 높다”고 썼다. 그 말대로 모교는 최근 현임 총장의 연

임이 수월하도록 총장추천위원회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현 유희림 총장부터 현임 총장은 연임 의사를 밝히면 총장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도 규정상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행정 공백을 무릅쓰고 임기보다 최대 6개월 빨리 총장직을 사퇴하는 부담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연임으로 인해 공약 추진에 대한 중간 점검 절차의 필요성도 높아졌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외 인사에겐 여전히 모교 총장선출 제도의 벽이 높다는 점도 짚었다. 발전계획은 “교외 인사를 총장후보초빙위원회에서 초빙하면 총추위 출석위원과 반수 찬성이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현행 규정은 상당한 제약”이라며 “교외 인사의 참여가 보다 용이한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외 인사 초빙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사례를 만들어내 대학의 ‘열린 태도’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총장 후보 평가과정에서는 교원, 직

원, 학생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 구성의 대표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교원은 정책평가 당일 무작위 선정을 통해 이뤄지는 단과대학별 할당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고, 직원과 학생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비중 등에 대해 꾸준히 이견이 있었다.

발전계획은 “온라인 방식의 의견수렴이 용이해진 시점에서 한정적으로 선정된 정책평가단이 후보자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단과대학과 소속, 지위 간 투표 반영 비율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투표 플랫폼을 통한 공약 발표와 전 구성원 평가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대표성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발전계획은 모교의 의사결정 체계가 다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사회, 재정위원회, 평의회, 학사위원회, 학사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거치면서 적시성을 놓치고, 일부 강한 의견에 의해

논의가 지연된다는 것이다. “각 의사결정 기구 사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미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이사회는 “외부인사들이 서울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사회 구성의 개방성을 제고하고, 학사운영 관련 일부 기능은 대학본부, 평의회, 학사위원회, 단과대학(원)에 위임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의회 또한 평의원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연령·직급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평의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학운영체제 개선의 핵심은 ‘전체’와 ‘부분’의 조화와 발전에 있다며 각 단과대학(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의사결정이 상충되거나 서울대 전체의 발전과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학본부가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거버넌스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수교원 확보와 직원 역량 강화가 필요함도 잊지 않고 강조했다.

동아리 탐방

향기 동아리 '미누시아'

# “동창회 모임에 어울리는 향은 나무향 아닐까요”

직접 만든 향 학내 곳곳에

오감 활용 체험형 '향 전시'도

‘향수 모으는 사람들의 모임일까? 디퓨저를 만드나?’ 모교 향기 동아리 ‘미누시아’를 접하고 든 의문이다. 4월 6일 학내 카페에서 만난 이유빈(수의학18입) 회장과 강해담(조소20입)·김성민(화학22입) 회원은 “향을 내 언어로 표현하고, 만들어 보고, 관심사와 경험을 향으로 엮어 예술로 만드는 활동까지 하는 동아리”라고 설명했다.

“향은 참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문법도, 공식도 없어서 더 재밌죠.” 2018년 설립한 미누시아는 30여 회원이 활동 중이다. 회원들이 향에 빠져든 계기는 다양하다. 향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물론 공감각적인 작품을 만들고 싶어 찾아온 미술 전공생, 이유빈 회장처럼 차나 술에서 나는 향이 궁금해 온 회원도 있다. 강해담씨는 후각이 기억을 불러오는 강렬한 경험을 한 것이 계기였다. “향은 즉각적으로 사람에게 뭔가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레몬향이 라고 하면 상큼한 느낌이 확 오듯이요. 소외되기 쉬운 후각의 정서적인 역할에 관심이 생겼죠.”

회원들은 주1회 스터디를 열어 향을 공부한다. 조향사를 초청해 강의를 듣기도 한다. 분자 단위 향료를 배합해 직접 향을 만들고, 방향 중엔 직접 기획한 ‘향 전시’를 연다는 점에선 예술이나 창작 동아리의 성격도 있다. 이들이 어제 만든 것이라며 향이 나는 액체가 담긴 조그만 통을 꺼냈다. 같은 꽃을 주제로 만들었는데 코를 대보니 저마다 느낌이 달랐다.

“‘장미향’이라고 해도 그걸 구성하는 분자들의 향은 완전히 달라요. 우선 분자마다 향을 맡고 ‘바나나집질 향이다’, ‘쓴 것 같다’처럼 각자의 감상을 나누죠. 이때 모두 생각을 마치기 전까지 절대 말하지 않는 게 룰이에요. 그걸 조향언어로 다시 정리하고, 공부한 다음 직접 향을 만들어 보는데 사람들



모교 향기 동아리 미누시아 회원들이 향료를 배합해 직접 향을 만들어보는 조향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미누시아

다 달달하거나 싱그럽거나, 각기 다른 장미향이 나와요. 만들다 보면 코가 지치기도 하고 배도 고파져요(웃음).”

학내에 미누시아의 향을 퍼뜨리기도 한다. 지난 가을 학교와 협의해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 화장실에 직접 만든 향을 배치했다. “도서관엔 시원한 나무 향을, 다양한 학생이 어울려 지내는 학생회관에 다채로운 과일이 섞인 향을 내려 했다”고 했다. 향을 맡고 동아리에 찾아온 이들도 있다. 가끔은 원데이 클래스를 연다.

활동의 백미는 방향 중 여는 향 전시. “디퓨저나 시향지 몇 개 놓는 게 아닌, 후각을 시각, 청각과 결합해 색다른 경험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지난 겨울 ‘코스요리’ 콘셉트로 향 전시를 열었어요. ‘페르세포네 설화’에서 ‘석류, 스틱스 강, 수선화’ 등의 심상을 추려서 향을 개발하고, 시간차를 두고 체험하게 했죠.” 드라이아이스로 향을 퍼뜨리고, 파이나 젤리 등 다양한 물질로 향을 전달하는 시도도 했다. 사진만 봐선 어느 미술 전시와 구분되지 않았다. “저희 목표는 향의 재조명이에요. 향이란 게 아직은 ‘사람에게 나는, 공간에서 나는 향’처럼 소유의 영역으로 이해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벗어나 향을 콘텐츠화 하고 경험의 영역에 끌어들이고 싶어요. 꼭 내 몸에 뿌리지 않

아도 영화나 공연처럼, 일시적으로 느끼고 경험했을 때 아깝지 않고 즐거울 수 있게요. 영화도 슬프고 우울한 작품이 있듯이, 대중적으로 좋은 향은 아니라도 향수를 자극하거나 여운이 남는 향으로 확장하고 싶어요.”(강해담)

‘동창회 모임에 어울리는 향을 추천해 달라’고 하자 ‘재밌는 질문’이라며 눈을 반짝였다.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건 나무의 이미지네요. 동창회가 저희의 기반, 뿌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건물에 놓는 향이면 ‘샌달우드’, ‘화이트우드’ 같이 너무 무겁지 않고 따뜻한 나무 향이 어떨까요? 소나무향도 좋지만, 서울대니까 조금 더 특색을 살려주세요.”(강해담) 이유빈씨는 “향을 정할 때 맥락이 중요하다”며 “음식을 먹는지, 회의를 하는지에 따라 다른 향이 어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각이 핵심인 동아리가 팬데믹은 어떻게 보냈을까. 기지를 발휘한 선배가 있었다. “전 회장님인 공유창(국어교육17입) 선배님이 군대에 계시면서도 비대면으로 향료 키트를 보내서 집에서 맡아보고, 줌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지요.”(이유빈) “결국엔 사람이 중요하단 생각이 들어요. 촉박하게 전시를 준비하느라 힘들고 막막해도 함께 남아준 사람들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어요. 향과

관련된 차, 술 모임도 하면서 신입들과 유대를 쌓으려고 노력해요.”(강해담)

마음놓고 쓸 동아리방이 없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동아리가 소장한 300여 개의 향료는 학생회관 캐비닛에 보관하고, 동아리연합회실이나 빈 강의실을 빌려 쓰고 있다. 김성민씨는 “빌려온 공간은 꼭 환기를 하고 나온다. 안 그런 동아리가 어땠겠나만 동아리 특성상 공간이 꼭 필요해서 아쉽다”고 했다. 분자 단위의 향료를 구입하고 관리할 때 김성민씨처럼 화학을 전공한 회원들의 도움이 크다.

이들은 향을 알고 세상이 더 다채로워졌다고 했다. 요즘엔 코에 꽃가루를 묻혀 가며 캠퍼스가득한 봄꽃 향을 맡느라 즐겁다. “조향을 시작하고 주변 향을 훨씬 잘 느끼게 됐어요. 화학적, 생물학적 요소가 있지만 향은 공부한다고 잘 아는 게 아니고, 정해진 공식도 없어요. 시각, 청각과 다르게 후각은 무시하기 쉽지만 직관적인 듯, 아닌 듯한 매력이었어요.”(김성민)

“향과 기억이 연결돼 있다고 하잖아요. 의식적으로 향을 맡으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순간도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냥 걷다가도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쉬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이 좀더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이유빈)

박수진 기자

모교 단신

창업 학생, 2년까지 휴학 가능

모교는 최근 이사회에서 창업휴학 연한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했다. 창업 휴학은 창업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2014년 모교에 도입됐다. 학부생 기준 최대 3년까지 가능한 일반휴학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은 2년, 카이스트는 무기한으로 창업 휴학기간을 두고 있다.

도서관,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시

중앙도서관은 최근 빅데이터 기반 지식정보 플랫폼 ‘LikeSNU’ 서비스를 개시했다. 최근 10년간 250만건에 달하는 모교 구성원의 도서 대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 도서 추천 시스템 ‘지식 망원경’, 지식 트렌드를 보여주는 ‘지식지도’ 등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에 수업 데이터를 연동해 학업 로드맵을 설계하는 등 시스템 적용 분야를 확대해갈 예정이다.

규장각,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표지 설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원장 이창숙)은 최근 관악캠퍼스 규장각 본관 앞 공간에 규장각이 소장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소개하는 안내판을 설치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의궤 △일성록 △조선통신사기록물 등 5점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삼국유사 등 1점이다. 규장각은 5월 31일까지 규장각 소장 한글 관련 자료를 소개하는 특별기획전 ‘바른 소리, 큰글’도 개최한다.

의사과학자양성사업 15주년 기념식

의과대학(학장 김정은)은 3월 10일 연건캠퍼스 의대 행정관 대강당에서 서울대 의대 의사과학자 양성프로그램 15주년 기념식 및 의사과학자양성사업단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의대는 기초의학 연구 진흥을 위해 2008년 대학원에 국내 최초로 의과학과를 설립하고 의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등이 융합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초연구 연수의 과정과 의사과학자양성사업단 운영을 통해서도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있다.

매일유업, 어린이병원에 아이스크림 지원

매일유업이 최근 모교 어린이병원에 멸균 아이스크림과 주스 6000개를 지원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 무균식 식사를 해야 하는 소아암 환아를 위해 기부한 제품이다. 강형진 모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어린이 환자들이 특히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하지만 마땅한 제품이 없어 아쉬웠는데 이번 지원이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감사를 전했다.

챗GPT 활용법 학내 강의 잇달아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대학가에서 화제인 가운데 모교도 학생과 교원 등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챗GPT 활용법을 알려주는 특강을 여러 차례 개최했다. 기초교육원이 3월 중 학부생을 대상으로 연 챗GPT 활용법 특강은 선착순으로 100명을 받는 접수가 빠르게 마감될 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경력개발센터는 3월 27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대학원생에게 실습 형태로 챗GPT를 활용한 연구주제 탐색, 논문 읽기와 쓰기 등을 교육했다.

## 한국문학사에 빛나는 별...도서관 1층서 만나는 서울대 문인

5월 19일까지 관정관서 전시

박완서, 김광규, 이성복 등

모교가 배출한 문인들을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중앙도서관(관장 장덕진)이 5월 19일까지 관악캠퍼스 관정관 관정마루 1층에서 개최하는 ‘신입생 비상전: 우리가 사랑한 시와 소설, 서울대인의 문학’이다.

전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한국 문학을 조명한다. 먼저 개교 이래 70여년간 모교가 배출하고 문학사에 발자취를 남긴 문인들의 작품이다. 시인 정한모(국문47-55)·황동규(영문57-61)·김지하(미학59-66)·김광규(독문60-64)·마중기(대학원64-66)·정희성(국문64-68)과 소설가 전광용(국문47-51)·박완서(국문50입)·최인훈



모교 중앙도서관에 전시 중인 서울대 출신 문인의 책.

(법학52입)·최일남(국문52-57)·손장순(불문54-58)·서정인(영문55-62)·이준준(독문60-66)·김승욱(불문60-65) 등 원로 작가 동문들의 소설과 시집을 전시했다. 여기에 시인 이성복(불문71-78)·황지우(미학72-79)·김정환(영문72-80)·최영미(서양사80-85)·이수명(국문85입)·심보선(사회

88-95), 소설가 이인성(불문73-77)·김영현(철학74-82)·최수철(불문77-81)·주인석(국문82-88)·김소진(영문82-88)·권여선(국문83-88)·김탁환(국문87-91) 등 한국문학의 허리 격인 동문 작가들을 함께 소개했다. 이들이 모교 학보인 대학신문에 기고한 글까지 갈무리해 보여준다.

도서관이 소장한 1910~1950년대 한국 근대문학 자료도 한자리에 공개했다. 중앙도서관 개인문고 중 ‘가람문고’(가람 이병기 선생 기증), ‘백사문고’(전광용 동문 기증), ‘일사문고’(방종현 선생 기증)에 포함된 시, 소설, 문예지 등이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지용시집’, ‘삼대’ 초판본 등 귀중본이 즐비하다.

전시 초반엔 도서관 출입증이 있어야 볼 수 있었지만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면서 일반인에게도 전시를 공개하게 됐다. 관정관 1층에서 방문증을 받아 관람할 수 있다. 김수진 중앙도서관 학예연구관은 “한국문학사의 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그들의 작품을 이번 전시에서 마주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우리의 행운이자 벅찬 감격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치과는 돈 없으면 못가는 곳, 과연 옳은 생각일까요?”

한동헌 (치의학93-00)

모교 치대 교수-전 행동하는의사회 이사장

### 돈의동 쪽방촌에 진료소 개소 치과의·치위생사 등 무료진료

치아는 신체 중 가장 단단한 부위다. 치아 결면 법랑질의 경도는 백금과 철의 경도에 맞먹는다. 그렇게 단단한데 가난에는 속수무책이다. 소득 분위가 한 단계 낮아질수록 치아는 두 개씩 빠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치과의사이자 전 행동하는의사회 이사장인 한동헌 모교 치대 교수는 ‘돈 없으면 치과 못 간다’는 통념에 반문한다. 그리고 ‘입 속에 보이는 삶의 격차가 온전히 능력과 노력 탓일까’ 되묻는다. 지난해 12월 그의 주도로 사단법인 행동하는의사회가 서울 돈의동 쪽방촌에 쪽방 주민을 무료로 진료하는 ‘우리동네 구강관리센터’(이하 센터)를 열었다.

3월 27일 돈의동 입구 쪽방상당소 5층의 센터에서 한 동문을 만났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나란한 지붕 아래 방을 쪼개어 살아가는 주민이 500여 명, 4개월간 80명의 신규 환자가 센터를 다녀갔다. 누적 환자 수는 200명에 달한다. 월·목·금요일 하루 3시간씩 센터 문을 열고 치과의사 6명, 치위생사 4명이 교대로 나와 진료를 본다. 상근 치위생사를 제외하면 모두 무보수다.

“2000년대 이후로 치과 진료 봉사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치



과 진료에는 장비가 필요해서 이동 진료에 한계가 있죠. 한 달에 한 번 날을 정해 진료소를 열어도 환자들이 찾지 않고요. 진료가 필요한 분들이 살고 있는 곳 근처에 상시적인 진료소를 만드는 게 진료 받는 분도, 봉사하는 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의동은 행동하는의사회가 2003년부터 의료 봉사를 해온 곳이다. ‘나눔과 열림’의 가치 아래 젊은 의사들이 결성한 행동하는의사회는 서울·인천·대구·부산에 각각 진료소를 차리고 중증 장애인, 저소득 계층, 이주노동자 등의 의료 취약 계층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치과

진료소를 차리는 게 숙원이던 차에 서울시와 우리금융미래재단의 지원을 받아 쪽방촌에 센터를 낼 수 있었다.

100% 예약제로 운영되는 센터는 엑스레이와 진료 의자 두 대를 갖추고 충치 치료, 발치와 레진, 틀니 치료 등 보철 치료를 하고 있다. 칫솔질과 같은 구강관리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진료실에서 “치료했어도 이를 잘 안 닦으면 충치가 생길 수 있다. 정기적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칫솔질을 해보자”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환자가 손에 칫솔을 쥐고 나왔다. “저희 웰컴 기프트예요. 원래는 이 닦기를 같이 하거든요. 칫솔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닦아 드리면서 어떻게 관리할지 알려드리고 있죠.”

환자 일곱 명이 다녀가자 센터 영업 시간인 3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사실 그는 치과에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오래 생각해온 치과의사다. 지역·연령·계층과 관련된 구강 건강 불평등을 꾸준히 연구하고 목소리를 내왔다. ‘씹는 능력이 떨어지면 불량한 영양섭취로 뇌기능에도 영향이 간다’며 치매 예방을 위해선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강화돼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쪽방촌에서도 가장 큰 고민은 아직 센터를 찾지 않은 80%의 주민들이다. 그는 “이곳에 오실 때 갖는 기대가 있다. 그걸 채워드리지 못하면서 ‘이 정도로 만족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무료니까 좋은 게 좋은 것 아닐까’ 하는, 알팍하고 시혜적인 생각을 깨는

말이었다.

“이곳의 환자분들은 충치 치료가 필요한 경우보다 치아를 상실한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 온다고 딱딱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를 뽑고, 뽑은 자리가 아물어야 하고, 이가 빠진 지 오래되어 틀니 제작이 까다로운 경우도 많죠. 또 하나는 틀니가 생각보다 불편하다는 겁니다. 자연히 씹는 것이나 모든 면에서 나은 임플란트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대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 있죠.”

센터 환경상 숙달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결국은 구강 건강권에 대한 얘기다. 가뜰이나 보장성이 낮은 치과 의료분야에서 소외계층은 치과 문턱을 엄두도 못 낸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있다면, 그것만큼은 보장해주는 게 우리 사회의 원리고 원칙이잖아요. 암 환자에겐 본인 부담 상한액이 있고, 장애인도 생활에 필요한 보장구를 지원해주는데 이는 꼭 없어도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치과 치료는 원래 비싸다’, ‘구강 건강이 나빠진 건 내가 관리를 못해서다’란 논리인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 이로 씹어서 먹을 수 있다는 건 건강한 삶에 필수적인 구성요소예요. 그렇다면 그걸 갖출 수 있게 사회적인 보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거죠. 취약 계층에게 ‘열심히 돈 모아서 임플란트 하라’고만 말하기보다, 이들에겐 지원의 폭과 너비가 더 두텁고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그를 움직이는 두 축이었는지 모른다. 대학시절 치의학과 대표와 치대 학생회장을 지냈고, 행동하는의사회는 정상훈(의학91-98) 초대 대표의 권유로 창립 초기부터 함께했다.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의 90년대 초 학번 의대생을 주축으로 출발한 행동하는의사회는 초반부터 회원들의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바탕으로 부산에 장애인치과를 설립하는 등 실천적인 활동을 해왔다. 한 동문은 2012년부터 5년간 국제보건의료재단 민관 협력 사업으로 라오스 오지 마을에서 의료봉사를 펼치기도 했다.

올해 센터의 목표는 문턱을 더 낮추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치과가 되는 것이다.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칫솔질 등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2, 3년 꾸준히 하면 주민 500분 모두 한번씩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가 없는 분은 틀니부터 헤드리고, 여러 방법으로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헤드려야죠. 치료된 치아는 관리도 중요한 만큼 주민분들과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의료인은 행동하는의사회 봉사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고, 비의료인도 후원회원으로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꿈을 키워보자면 이곳을 치과뿐만 아니라 양방, 한방까지 종합적으로 진료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침 어디서든 찾아오기 좋은 위치에 있죠. 창신동, 서울역 등 2000여 명 서울 쪽방 주민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구상도 해보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

## “요즘 누가 바둑을? 바둑학원만 전국에 수백 곳 있습니다”

남치형 (영문94-98)

국제바둑학회 회장

### 지능개발 효과에 바둑 인구 증가 “명지대 바둑학과 폐과 철회를”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주임교수가 최근 발족한 국제바둑학회 초대회장에 취임했다. 최근 5년간 활동이 없었던 한국바둑학회의 조직을 이어받는 동시에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인이 뭉치는 조직으로 확대, 재편한 것. 바둑 관련 논문을 받아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3개국어로 된 학회지 창간호를 발행했고, 일본어 논문을 추가한 두 번째 학회지를 준비 중이다. 회원수는 아직 100명이 채 못 되지만 중국, 일본은 물론 미국,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호주, 파키스탄, 크로아티아 등 많은 국가의 바둑인들이 가입했다. 3월 30일 분당에 있는 카페에서 남치형 동문을 만났다.

“국내 바둑 연구자의 수가 정말 부족합니다. 논문을 모집하거나 바둑 관련 연구를 하는 데 인적 자원의 부족이 심각해요. 한국바둑학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이유기도 하죠. 대신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의 대국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바둑의 국제적 인지도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바둑과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글로

벌 학회를 만들면 이러한 연구와 인적 자원을 포섭함으로써 바둑 발전과 저변 확대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국제바둑학회 창립의 또 다른 동력은 아이러니하게도 명지대 바둑학과 폐과 소식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 및 대학원을 개설, 운영하는 명지대는 지난 연말 철학·수학·화학·물리학과와 더불어 바둑학과 폐과를 결정했는데, 폐과가 발표되자 국내외에서 철회를 탄원하는 성명이 빗발쳤던 것.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등이 가입한 ‘대학바둑연맹’에서 폐과 반대 성명을 냈으며, 특히 모교 바둑부가 앞장서 ‘서울대에도 없는 세계 1위 학과를 명지대가 갖고 있다. 바둑학과를 없애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명지대에 바둑 유학 온 중국, 대만 학생들이 각자 자기 출생지에 폐과 반대 서명 운동을 요청, 중국에서만 500여 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명지대 바둑학과는 1997년 바둑지도 전공으로 시작해 지난 26년 동안 7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중 유학생이 85명, 프로 기사가 70명쯤 되고요. 한국기원이 프로 기사를 배출하는 사관학교라면, 바둑학과는 바둑계 곳곳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는 교육양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둑의 수뿐 아니라 바둑사(史), 바둑 영어, 바둑 중국어, 바둑 교육론, 바둑의 사회적 영

향 등을 공부해 한국기원, 대한바둑협회 같은 기관에 들어가거나 바둑 미디어, 바둑게임업체, 바둑 포털 사이트 등에 취업합니다. 학원을 차리거나 방과 후 수업으로 바둑을 가르치기도 하고, 베트남·필리핀·프랑스·호주·캐나다·독일 등 외국에도 많이 나가요. 실업된 운동선수처럼 일반기업에 취직해 일하면서 회사 대표로 바둑 리그에 출전하죠.”

바둑학과가 생기면서 바둑을 직업으로 삼는 경로도 다양해졌다. ‘미생’의 주인공 장그레는 18세까지만 입단을 허용하는 룰 때문에 프로 기사의 꿈을 접고, 마치 고시 실패자처럼 번듯한 직장을 잡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일반인 입단대회가 신설돼 성인이 된 후 ‘지각 입문’하는 것도 가능해졌고, 프로 무대에서 활로를 찾지 못한 기사들이 바둑학과에 들어와 다른 진로를 찾을 수도 있게 됐다.

한국 프로 기사들의 활약도 눈부시다. ‘신공지능’이라 불리는 2000년생 신진서 9단은 승률이 90%를 넘는 세계랭킹 1위의 선수다. 선배 프로 기사 그 누

구보다 뛰어나고, 돈도 더 잘 벌지만, 어지간히 바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조치훈·조훈현·이창호·이세돌까진 일반인에게도 낯익은데, 이후 프로 바둑기사는 누가 있는지 잘 모른다. 바둑을 두지 않으면 바둑이 침체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3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세계 최강을 지켜오다 보니, 오히려 미디어의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1980년대 조치훈 9단 땀 국내 대부분의 일간지가 그의 활약을 발 빠르게 대서 특필 했어요. 당시 일본 최고의 기사였거든요. 가위바위보 하나도 일본엔 질 수 없다는 국민적 정서가 큰 영향을 끼쳤죠. 한껏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가 1989년 조훈현 9단이 세계대회 우승을 하면서 또 한 번 각광을 받았습니다. 바둑 붐은 1990년대까지 이어졌고, 이창호 9단이 나왔어요. 일본도 중국도 다 이겼고요. 월드컵 축구는 어찌든 16강만 가도 열광하는데, 바둑은 늘 세계 1위를 하니가 외려 관심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마니아층은 여전히 견고하고, 바둑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게 입증되면서 일찍 바둑을 접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기원 빼고 바둑학원만 전국에 수백 곳 있죠.” 배우기 어렵고 재미를 알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둑. 속도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엔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데, 인기의 비결이 뭘까. 남 동문은 “가만히 앉아 긴 시간 머리를 쓰는 취미가 바둑 외엔 없다”고 답했다. 요즘엔 유튜브를 보더라도 5분씩 잘라서 시청할 만큼 길게 집중을 못 하는데, 바둑은 시청각적 자극 없이 몇 시간 동안 고요히 즐길 수 있다는 것.

세계 최강 한국 바둑의 위상과 바둑 인구의 저변 확대, 바둑계 인재 공급과 프로 기사 지망생의 진로 다양화 등 바둑학과 폐과 논의는 충분하다.

“인터뷰하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폐과가 발표되면서 사람들을 만나 자꾸 얘기하고 다녀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좀 더 앞장서 뭔가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총동창회에서 매년 꾸준히 바둑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큰 힘이 돼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계시니까 힘닿는 대로 바둑계를 지원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외국 선수를 이겨서, 세계 1등이라서… 이런 이유가 아니라 바둑 자체의 매력과 대회나 학회, 학과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경태 기자

후원문의: 031-330-6255 김재림 사무국장



# 2026년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공간이 서울대학교에 탄생합니다

서울대 관악캠퍼스의 대표 복합 문화 시설이던 문화관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으로서 미래 한국문화 발전의 책임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후화된 문화관을 증개축 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태어날 복합 문화 공간을 위해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관객과 소통하는 빈야드 홀

관객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고정되던 것을 벗어나 새로운 물리적, 심리적 공간감을 제공



### 소통과 교류의 공간

만남과 교류, 휴식과 창작이 활발히 일어날 새로운 창의적 문화를 생산하는 공간



### 입체적 문화 플랫폼 공간

대학의 중심인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문화 활동과 실험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형식을 만들어내는 공간

### 인프라허브

대학-지역 상생을 위한 생활 문화 인프라허브 역할의 공간

### 문화융합

문화 기술 융합형 인재양성의 인큐베이터로 전시실, 크리에이터 라운지 공간

### 랜드마크

서울대 최초의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서울대와 서울시 서남권 랜드마크 건축물

### 공감의 공간

서울대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 가치를 담아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공간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를 작성 후 휴대폰으로 찍어 1666-2930 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00만 원 이상 기부 시 공연장 좌석에 네이밍을 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금목표  
**500억 원**

모금액  
188억 원  
2023년 4월 기준

### 문화관 리모델링기금 간단참여신청서 [MH23-04]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학과(특별과정): \_\_\_\_\_  
 입학연도(기수): \_\_\_\_\_  
 약정금액:  정기후원 매월 \_\_\_\_\_ 원  
                    일시후원 일금 \_\_\_\_\_ 원



서울대학교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의 대표모금기관입니다.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 (940동) 2층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문의 : 발전기금(접수) Tel. 02-871-8004 Fax. 02-872-4149 E-mail. snuf@snu.ac.kr

동문맛집

# 월화수목금금금...쉬는 날도 맛난 과자 연구하려 일합니다

이지아(대학원12-15)  
부산 '프랑스 과자점 브리앙' 대표

## 술서서 사 먹는 명품 과자점 개점 후 2년 넘게 완판 행진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프랑스 과자점 브리앙'은 정오에 문을 연다. 오후 5시까지 영업시간이라고 하지만, 보통 오후 3시만 돼도 준비된 과자가 다 팔려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다. 게다가 월요일, 화요일은 휴무. 1월 한 달은 휴업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365일 영업하는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이런 독특한 영업방식은 프랑스 본토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정통 과자를 만들어 제공하겠다는 이지아 대표의 신념이 녹아 있다. 이지아 동문을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과자도 음식과 같아서 조리를 갖 마쳤을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풍미나 맛의 훌륭한 것은 당연하고, 먹는 타이밍까지 놓치지 않아야 하! 하는 탄성을 자아낼 수 있죠. 아침 일찍 전부 구워 놓고 하루 종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파는 그런 과자로는 맛의 감흥을 일으키기 어려워요. 최고의 과자를 최상의 타이밍에 제공함으로써 즐기게 되는 완벽한 맛. 제가 과자점을 연다면 꼭 하고 싶은 영업 방식이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휴무는 손해일 수 있죠. 그러나 눈앞의 손해를 먼저 생각하면 좋은 과자를 만들기 힘



듭니다.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 최고의 과자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경제적인 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믿었어요.”

이 동문의 믿음은 현실이 됐다. 2020년 12월 개점 이후 지금까지 줄곧 완판 행진을 이어온 것. 영업시간 전부터 미리가 줄을 서야 하고, 늦게 도착하면 선택할 수 있는 과자의 종류가 줄거나 아예 아무것도 못 사고 돌아서야 하는데도, 브리앙은 정말 맛있는 과자를 사려는 손님들로 늘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 동문은 손님 앞에 만들어 내놓는 과자 하나하나에 제과 지식 및 기술은 물론 자신이 경험한 프랑스 문화의 풍류까지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고 말했다.

모교 대학원에서 불어학 석사 학위를 받은 이지아 동문. 재학시절 전공 공부보다 제과 공부에 더 마음이 기울었다

고 한다. 취미 삼아 학업과 병행하던 제과였는데, 손으로 과자를 빚고 굽는 동안 아주 깊이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느꼈다고. 제과 종주국인 프랑스의 언어를 유창하게 할 줄 아니까 프랑스어로 된 레시피와 많은 제과 서적이 쉽게 읽혔다. 프랑스어 전공 덕분에 프랑스 정통 제과에 더 깊이 빠진 셈.

“동기들이 박사 학위 따라 프랑스로 떠날 때 저는 거품기와 앞치마를 들고 ‘르 꼬르동 블루’ 파리 본교에 입학했습니다. 현지의 제과 문화를 직접 보고 익혔죠. 수료 후 파크하얏트 파리 방돔, 피에르 에르메 파리에서 근무했고, 귀국 후 웨라톤 서울에서 경력을 이어갔어요. 인천전문예실용전문학교의 제과부 겸임교수로 부임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다양한 제과업체의 메뉴개발을 돕기도 했어요. ‘라루즈 파티세리’, ‘에클레

어드 제니’, ‘르 꼬르동 블루 파티세’, ‘차는 어렵지 않아’ 등 프랑스어판 제과 서적 4권을 우리말로 옮겼고, 김태희(의류99-05) 동문 결혼식 댄 연회 디저트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개점 후엔 브리앙 운영이 곧 일상이 돼 휴무일에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색다른 경험을 찾는다. 특히 백화점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보고. 의류·화장품류의 유행하는 색과 식품코너의 인기 음식, 반응이 좋은 그릇류 등을 살펴 제품 패키지와 영업장 관리 등에 녹여낸다. 파리의 하이엔드 제과점들이 마치 보석을 다루듯 제품을 진열, 포장하는 데 착안해 이 동문도 고유의 패키지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과자를 먹으면서 느끼는 맛과 풍미뿐 아니라 구입 후 집으로 가져가 포장을 열기까지의 과정도 셀링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다. 그런 그에게 과자는 공산품 아니냐고 물었더니 “브리앙의 과자는 신선 식품”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과자도 최상의 맛을 내는 황금시간대가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게 좋고, 적어도 제조 당일을 넘겨선 안 돼요. 택배 판매를 하지 않는 이유죠. 아무리 빨라도 다음날 도착하니깐요. 브리앙의 대표메뉴는 마들렌, 까놀레, 갈레트 브르통느, 휘낭시에, 가토 오 시트롱 등 다섯 가지 프랑스 향토 과자입니다. 파리에서 근무할 땐 화려한 무스 케이크를 주로 만들었고, 그게 수준 높은 제과로 여겨졌지만, 정작 먹을 땐 큰 감흥이 없더라고요. 저는 오븐에 구워 겹겹이 풍미를 입히는 과자에 매력을 느끼

니다. 제과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를 기반으로 다섯 가지 과자가 서로 다른 맛과 식감을 띠도록 다채롭게 구성했어요.”

다섯 가지 과자를 1개씩 넣은 ‘브리앙 컬렉션(1만9000원)’, 종류는 같지만 9개를 넣은 ‘브리앙 그랑부아뜨(3만3000원)’, 대표 과자에 제철 과자를 넣은 ‘브리앙 프리미어(5만8000원)’ 등 세트 상품 외 ‘사블레 루 바니유(2만원)’도 상시 제공하며 매년 밸런타인데이 땐 최고급 송로버섯으로 만든 ‘송로버섯 트뤼프’를 판매한다.

산딸기 철엔 산딸기 크림을 넣은 슈크림을, 여름엔 프랑시스 아이스크림을 출시한다. 과자를 맛있게 먹기 힘든 1월엔 아예 휴점하고 프랑스 전역을 돌며 귀중한 재료를 발굴하거나, 다양한 전통 과자를 만나 재해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휴무일에도 영업시간이 끝나도, 더 좋은 과자를 만들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는 것.

“어렸을 때부터 해외 여러 나라를 다니고 살아보기도 했지만, 부산에 와 정착한 건 이곳 출신인 남편의 영향이 컸습니다. 날씨·환경·도시 제반 시설 등 서울보다 뛰어난 부분도 많아요. 살기 좋은 순위로 따지면 부산이 우리나라 1등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웃음). 아름다운 부산에서 이웃한 곳에 남편은 식당을, 저는 제과점을 나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놀러 오시면 브리앙에 들려주세요. 정통 프랑스 과자의 참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나경태기자  
문의: 0507-1342-5709

사진한컷

## 석양을 향해, 외가를 향해!

강진욱 의학94-00  
서울플러스이비인후과 원장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뒤엎어버린 어느날 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는 해를 쫓아 달려 나간다. 반포를 출발해 외가가 있는 흑석동까지 가는 여정을 포근한 저녁해가 이쪽으로 올라 안내해준다.

그 힘든 시간을 돌리는 힘찬 패달질처럼 어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벗어나 더 나은 일상, 가족, 친구들과의 반가운 만남들이 다시 시작되길 바란다. 아 빠를 앞서 내달리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다시 한 세대가, 한 시대가 시작됨을 느껴본다.

※ 동문 사진 공모합니다.

3MB 이상의 화질로 300자 내외의 사진 설명을, 성함·학과·입학연도·주소·휴대폰 번호와 함께 news@snu.ac.kr 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동문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문의: 02-886-2219



화제의 동문 유튜버 ‘멘디쌤의 심리학 이야기’ 조명국 (심리08-15) 동문

## “자존감, 성취만으로 높아지지 않아요”

“자존감”은 때로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심리학 용어다. 모든 행동을 ‘자존감이 낮아서, 높아서’로 해석하기 일쑤다. 도대체 자존감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조명국 동문의 채널 ‘멘디쌤의 심리학 이야기’를 보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마음. 조 동문이 정의하는 자존감이다. 그는 심리학과 졸업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UX디자인과 심리학을 접목한 상담 서비스를 열었다. ‘자존감이 낮다’며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접하고, 자존감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제대로 된 지식은 부족함에 안타까움을 느낀 것이 자존감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 계기였다.

6만 구독자 제각기 사연은 달라도 마음이 힘겨워 채널을 찾았을 터. 그는 자존감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며 ‘거절 두려워하지 않기, 완벽주의 벗어나기,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기’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안한다. “애초에 너무 높은 자존감이란 개념이 없다”며 자신감이 과하거나 단정적인 말투 등은 오히려 낮은 자존감의 발로라고 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선 ‘편안함과 단단함’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는 한때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자존감 스터디를 하면서 자존감이 낮은 서울대인도 많이 만났다고 했다. 그의 말



에 따르면, ‘성취’는 자존감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다. ‘뛰어난 능력은 진짜 자존감이 높아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그렇게 높이는 게 아니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건 무엇을 해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해내지 못하면 ‘불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달성해야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를 스스로에게 묻고, 직면해보세요.”

나의 능력과 성과를 폄하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되도록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기가 괜찮다고 믿는 사람은 누군가의 성과를 꺼내릴 필요가 없죠. 열등감을 가진 사람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 불편하게 하진 않았나 돌아보게 된다”는 댓글이 달렸다.

조 동문은 1인기업 ‘멘탈경험디자인’을 운영하며 자존감 상담과 심리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책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다’, ‘아까 화 났어야 했는데’를 냈다. 채널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자존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박수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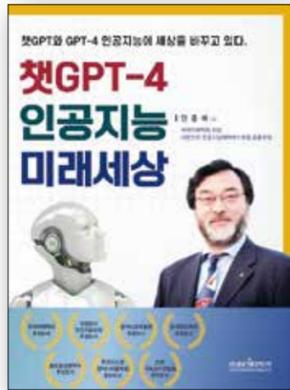
화제의 책

“챗GPT에 예측되지 말고, 인간이 주체가 돼야”

미국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와 GPT-4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챗GPT의 하루 평균 사용자가 2500만명을 돌파했다. 알파고가가 가져온 충격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챗GPT가, 누구나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바야흐로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 범용인공지능 시대의 서막을 연 것이다.

전 세계는 인공지능 강국이 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 전쟁이라 불릴 만큼 치열한 디지털 패권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미래는 인공지능에 의해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국가의 경쟁력일 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관의 경쟁력이고 사회와 개인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 경쟁력은 곧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역량이기도 하다. 챗GPT는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제공



챗GPT-4 인공지능 미래세상

안중배 (독어교육81-85) 국제미래학회 회장  
광문각출판미디어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급증하고 활용 영역도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공지능을 선용할 수 있는 역량이다. 초거대 범용인공지능 초

기인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을 인간이 주체가 되어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확산해야 한다. 자칫 우리가 인공지능에 예측된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공지능을 수단으로, 인류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은 남·녀·노·소 누구나 챗GPT와 GPT-4 인공지능을 쉽게 이해하고 챗GPT와 GPT-4 인공지능 활용시에 우리가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챗GPT, GPT-4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어떻게 다양한 영역에서 선용할 수 있는지를 70가지 영역에서 직접 체험하며 활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쉽게 저술했다.

책은 챗GPT와 GPT-4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시작한다. 챗GPT를 통해 레시피, 패션, 헬스, 집안일 등과 같은 일

상적인 일부터 자산투자, 금융서비스, 배달, 스마트워크 등의 영역까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단계별로 알려 준다.

더 나아가 챗GPT를 통해 시를 쓰고, 단편소설, 작사/작곡, 그림 그리기, 영상 만들기 등을 어떻게 하는지 개념과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더불어 법률 자문, 세무자문, 언론기사, 코딩과 같은 고차원적인 업무들도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챗 GPT-4 인공지능의 미래 목표 활용과 영성의 중요성, 챗GPT GPT-4 인공지능 시대 인성과 윤리의 중요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저술했다.

안 동문은 “GPT-4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인간 스스로가 주체가 되도록 챗GPT, GPT-4 인공지능을 수단으로 한 산출물을 참조로 하여, 창의성과 열정을 갖고 자신만의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선용하기 바란다”고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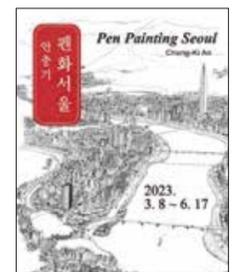
EXHIBITIONS

오용길: 마음을 담은 풍경, 안양  
5월 23일~6월 18일 안양 평촌아트홀



‘21세기 겹재’로 불리는 실경산수의 거장 오용길(화화65-72 이화여대 명예교수) 동문이 자신이 나고 자란 안양의 자연, 예술, 도시 풍경을 담은 신작들을 선보인다. 국전 장관상과 월전미술상, 의재 허백련 예술상 등 주요 상을 휩쓴 그는 전통적인 필묵에 현대적인 수묵 채색을 더한 풍경화로 현대 수묵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문의: 031-687-0500

안충기 동문 개인전 ‘펜화서울’  
6월 17일까지 서울 필동3가마프 MAF



펜화 작가 안충기(국사 82-89 중앙일보 오피니언 비주얼 에디터·분지 논설위원) 동문은 먹물 짙은 철

펜 하나로 세상 모든 것을 그려낸다. 새의 눈으로 하늘에서 본 도시와 거리, 문화유산까지 0.1mm 선으로 구현했다. 대표작 ‘비행산수’ 시리즈와 최근 펴낸 책 ‘처음 만나는 청와대’에 실린 청와대 관련 펜화 등 신작을 선보인다.

문의: 02-3444-7178

BOOKS

아흔 이후 1

박종대(국어교육51-56) 시인  
책만드는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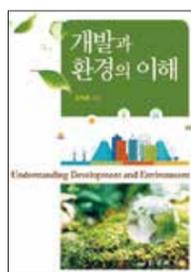
아이고 잠이 와야지/ 밤마다 이 고생이니 // 못된 짓 그리 했으니/ 당연한 벌이다 벌// 안 자서/ 잘못이 가신다면/ 안 잘란다

일어나 (시 ‘불면’ 전문)

박종대 동문은 하찮은 일상생활에서 시상을 포착하여 예리한 직관적 통찰로써 내공을 들여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데 재주가 많은 시인이다. 사물을 대하는 심성이 긍정적이고 청정무구하며 그 인식 또한 순수 서정으로 발현되고 있다. 대부분 작품에서 중층의 비유가 빛을 발하고 있어 문학성을 높이고 있는가 하면, 작품마다 밀고 당기며 연결하는 참신한 시상에 재미를 더하다가 종장에 이르러선 그 절정을 맛보게도 한다.

개발과 환경의 이해

김학훈(지리교육75-81) 전 청주대 교수  
동화기술



개발과 환경이라는 주제는 지리학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환경보전과 기후변화와 관련해 관심이 많은 주제다. 김학훈 동문은 개발과 환경을 통합적 시각으로 접근해 이 책을 썼다. 환경론 및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이해를 기초로 해서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인구의 저출산·고령화, 자원과 에너지, 산업화와 도시화, 지역 개발과 지역정책, 지구환경문제, 환경오염, 폐기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까지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다루었다. 뒷부분에서는 개발행위와 환경보전의 갈등과 환경정책,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나는 꽃보다 잎이 좋다

박승오(치의학62-68) 전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 문예바다



치의 학박사이며 시인인 박승오 동문의 두 번째 시집. 180여 편의 시를 6부로 나눈 이 책은 화려한 꽃보다 꽃을 받쳐 주는

잎을 더 좋아하는 시인의 눈길이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자연, 인간관계, 사물의 현상 등을 날카롭게 직시하며 때로는 선선한 긍정으로, 때로는 은근한 질책으로, 때로 따뜻한 배려와 포용을 하는 서정성과 사유를 엮보게 한다. 백시종 소설가는 “박승오 시인이 일관되게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굴곡으로 점철된 현대인의 고뇌와 새로운 사랑법의 교류’가 아닌가 싶다”며 “깊은 명상과 탐구를 통해 사랑의 무력함과 소통의 한계를 ‘꽃보다 잎이 좋다’는 성찰의 논리로 진면목을 풀어낸다”고 평했다.

박포원의 미국학교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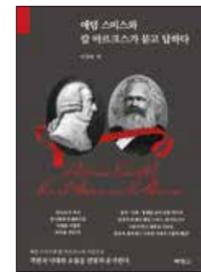
박포원(공업화학83-87) 나노 부사장  
북랩



박포원 동문이 시카고 중앙일보의 ‘J전문가 칼럼’란에 1년 6개월 동안 연재한 글들을 다듬고 시간순으로 엮었다. 일리노이주 던랩 학군에서 교육위원으로 봉사하면서 겪었던 일과, 미국의 교육현장에 대한 세세한 설명들이 빠곡히 들어차 있다. 거기에 시카고 미주 체전, 백투스쿨 나이트, 트래블 축구 팀, 홈커밍 축제 등 미국의 재미있는 일상 이야기들도 저자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히 들을 수 있다. 특히 교육위원 선거 출마와 당선 이야기가 흥미를 끈다. 박 동문은 “교육위원회 활동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통해 지역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소중한 일이었다”고 회상한다.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가 묻고 답하다

이경태(경제66-70)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박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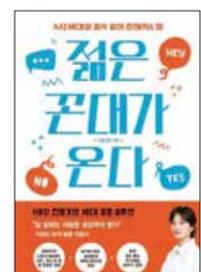


이 책은 역사 서이면서 픽션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걸어온 길을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서 애덤 스미

스와 칼 마르크스를 세상으로 불러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논하게 한다. 물론 두 거장이 나누는 얘기 속에는 저자의 상상이 날개를 펴고 있다. 저자는 2019년에 출간한 ‘평등으로 가는 제3의 길’이라는 자전적 경제평론집에서, 자본주의가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는 논거를 제시하였고 평등한 노동자 세상을 꿈꾸었던 공산주의가 실패한 원인을 규명한 바 있다. 이 책은 그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보강된 역사적 사실들과 저자의 상상력이 보태져 흥미와 유용성이 배가됐다.

젊은 끈대가 온다

이민영(대학원05-13) T&D 파트너스 대표  
크레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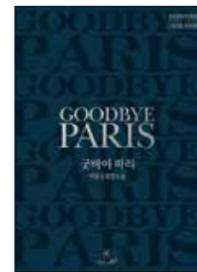


HRD 전문가인 이민영 동문이 강연을 다니며, 임직원을 교육하면서 만난 다양한 사례와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직장 커

뮤니케이션 방법이 담겨 있다. 끈대 과정을 지나친, 현재 끈대인, 미래에 끈대가 될 직장인 모두 회사라는 조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세대 갈등으로 인해 서로가 공감하지 못하며 지내고 있다. 저자는 끈대는 나이 불문이며,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감능력이 부족한 것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앞으로 등장할 알파세대가 어떤 세대 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모든 세대가 공존해야 한다는 미션을 수행 중임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조언한다.

굿바이 파리

박종규(응용미술69-73) 한국작가교수회  
부회장 / 리곤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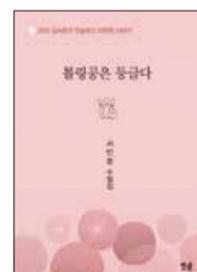


한 인간의 예술과 가족을 위한 곡진한 여정이 유려한 문체로 펼쳐진다. 남북한 이데올로기가 위정자의 체제 유지용, 인

간 도구화의 전용으로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킨 ‘동백림 사건’이 배경이다. 이 사건이 남북, 유럽, 남미 등 시공간을 넘나들며 한 인간의 삶과 세계에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준다. 프랑스 파리에서 천재성을 발휘했으나 예술과 가족에 대한 열망을 송두리째 빼앗긴 젊은 예술가의 처절한 서사는 바로 우리 민족의 비극적 서사이기도 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토리움은 “짜임새 있는 구성과 당대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기울인 부분들이 눈에 띄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볼링공은 둥글다

서민웅(AIC 7기) 수필가  
말그릇



서민웅 동문의 첫 수필집.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32년 동안의 감사관 생활을 글로 풀었다. 420쪽, 71편의 작품을 통해

저자가 경작해 온 정직한 삶의 태도와 32년 동안 전국을 돌며 사정 업무의 한 날개에 기여한 일화를 엿볼 수 있다. 2013년에 쓴 ‘저출산 쇼크’, ‘꿀벌도 힘든 세상’은 10년이 지난 지금 묘한 기시감을 준다. 표제작인 ‘볼링공은 둥글다’에서 서 동문은 “동근 공은 예측한 오차범위를 자주 벗어난다. 삶도 공만큼이나 오차가 크다. 생각대로만 굴러가지 않는다. 볼링공이 도랑에 빠졌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동그니까 그런 거라고, 일어서야 한다”고 썼다.

CONCERTS

오산 위클리 클래식 페스티벌

6월 24일까지 경기 오산시 MEG아트홀



70석 규모 소극장에서 즐기는 실내악 공연. 4월 29일 기타리스트 이미솔(기악05-09) 동문의 듀오 공연, 5월 7일 이성창(기악12-16)·조상현(기악11-17)·조민진(기악16-20) 동문이 소속된 아스틴 콰텟(사진)의 공연, 5월 20일 피아니스트 문지영(기악02-06) 동문의 ‘Trio M’ 공연, 5월 21일 재학생 김경석 씨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이어진다. 문의: 010-9458-5310

올댓 푸치니, 올댓 오페라

5월 2일 잠실 롯데콘서트홀



매년 유명 오페라 작곡가의 작품을 집중 조명해온 그랜드오페라단(단장 안지환 성악73-77)이 3년 만에 푸치니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개최한다. ‘라 보엠’, ‘토스카’, ‘나비부인’, ‘투란도트’ 등 푸치니 4대 걸작의 명곡들을 선보인다. 문의: 010-4574-4767

# 동정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인사, 수상, 행사, 결혼 등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5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신문에 게재됩니다.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이메일 news@snu.ac.kr 전화 02-886-2219 팩스 02-886-2218

### 인사



**정대철**(법학62-67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3월 22일 대한민헌정회 신임 회장에 선출.



**이장무**(기계공학 63-67 전 모교 총장) 3월 10일 대한민국학술원 제40대 회장으로 재선출.



**이진강**(사법68졸 전 대한변협 회장) 3월 14일 인촌기념회 이사장에 선출.



**권영걸**(응용미술 69-76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3월 26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위촉.



**윤영관**(외교71-75 모교 명예교수) 3월 23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에 선임.



**김석수**(자원공학77졸 전 동서식품 회장) 3월 16일 동서식품 회장 겸 명예이사에 선임. 5년 만에 회장직 복귀.



**신각수**(법학73-77 전 주일대사) 2월 2일 니어재단 부이사장에 임명.



**최병오**(AMP 63기 패션그룹형지 회장) 3월 15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부회장에 선임.



**박승준**(중문74-78 최종현학술원 자문위원) 4월 3일 아주경제 논설주간에 임명.



**김기문**(AMP 51기 제이에스티나 회장) 2월 28일 제27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재선임.



**이동기**(경영76-80 모교 명예교수) 3월 24일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창립식에서 초대회장에 선임.



**노연홍**(HPM 18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3월 2일 한국 제약바이오협회 제22대 회장에 취임.



**양윤준**(의학79-85 인제대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3월 26일 대한스포츠의학회 회장에 취임.



**이석연**(대학원81-91 전 법제처장) 3월 17일 부산 동서대 석좌교수에 임용.



**강효상**(사법81-85 전 TV조선 보도본부장) 3월 21일 경인방송 IFM 대표이사에 선임.



**남정호**(경제81-85 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3월 15일 한국 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에 취임.



**주용중**(사법81-85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3월 31일 TV조선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



**이하경**(ALP 26기 중앙일보 대기자) 3월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제8대 이사장으로 재선임.



**박철희**(정치82-86 모교 국제학연구소 소장) 3월 30일 국립외교원 원장(차관급)에 임명.



**방문신**(경영82-89 SBS 문화재단 사무처장-본지 논설위원) 2월 23일 보도 및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에 임명.



**김대한**(공법83-87 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3월 17일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제7대 사무총장에 선임.



**최은주**(서양화83-87 전 대구미술관장) 3월 24일 서울시립미술관장 후보자로 최종 확정.



**한명진**(경영83-87 전 방위사업청 차장) 최근 국립순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로 임용.



**강선희**(사법84-8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3월 21일 SPC그룹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박성원**(정치84-88 동아일보 논설위원) 4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에 임용.



**허원순**(미학84-90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3월 27일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에 임명.



**강경영**(영문85-90 연합뉴스 전략기획실장) 3월 27일 연합뉴스 편집총국장에 임명.



**구본진**(사법85-89 법무법인 로폴렉스 대표변호사) 4월 1일 더킴포럼 대표변호사에 선임.



**이기수**(인류85-91 경향신문 논설위원) 3월 27일 경향신문 편집인 겸 논설주간에 임명.



**이철민**(경제85-91 모교 경제학부 교수) 4월 1일 제44대 한국재정학회 회장으로 취임.



**우해영**(국제경제 86-90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3월 30일 한국자금중개 사장에 선임.



**조구래**(정치87-92 전 국회의원 외교통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



**홍성규**(의학90-96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3월 4일 대한전립선학회 회장으로 취임.



**양희석**(경영01-06 대신파이낸셜 부회장) 3월 30일 대신증권 이사회의장에 선임.



**신창재**(의학72-78 교보생명 이사회 의장) 3월 22일 세계보험협회가 수여하는 '2023 보험 명예의전당 월계관상' 수상자 선정.



**강윤구**(의학75-81 서울아산병원 중앙내과 교수) 3월 21일 제16회 아산의학상(임상의학) 수상.



**박국양**(의학75-81가 천의대 흉부외과 교수) 3월 22일 대한의사협회가 수여하는 보령봉사대상 수상.



**김형수**(금속공학 83-87 SK하이닉스 부사장) 3월 16일 한국공학한림원 젊은공학인상 수상.



**정연두**(조소88-94 성균관대 미대 교수) 3월 6일 국립현대미술관 중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인 'MMCA 현대차 시리즈 2023' 작가에 선정.



**정충원**(생명과학02-06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 3월 21일 제16회 아산의학상(젊은의학자 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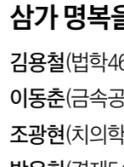
**김명국**(치의학54-58 모교 명예교수) 모교 치의학대학원 개학 100주년 맞아 김명국 명예교수의 소장품전을 개최하고, 전시 후 그 내용을 책으로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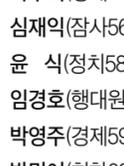
**고창석**(경대원71-73 전 대성산업 상임고문) 최근 시 작품으로 계간 '현대작가' 신인 등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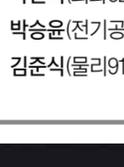
**김용철**(법학46-50 전 대법원장) 3월 14일 별세(99세)



**이동춘**(금속공학53-57 전 대명전자 회장) 3월 24일 별세(90세)



**조광현**(치의학58졸 전 영진치과의원 원장) 3월 27일 별세(87세)



**박우희**(경제54-58 전 세종대 총장) 3월 14일 별세(87세)



**심재익**(잠사56-63 전 잠사회 회장) 3월 11일 별세(86세)



**윤 식**(정치58-64 전 국회의원) 3월 24일 별세(83세)



**임경호**(행대원65졸 전 영남대 객원교수) 3월 29일 별세(83세)



**박영주**(경제59-63 이건산업 회장) 3월 6일 별세(82세)



**박민여**(회화62-66 전 경희대 가정대학장) 3월 22일 별세(80세)



**박승윤**(전기공학77-81 전 제철산업 이사) 3월 14일 별세(6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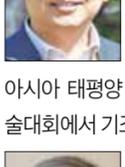
**김준식**(물리91-96 전 모교 컴퓨터공학과 박사후 연구원) 3월 28일 별세(51세)



**라종억**(AMP 48기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 3월 30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조선일보와 공동주최하는 '통일과 나눔 아카데미' 개원 10주년 기념식 개최.



**신대철**(국악69-73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3월 4-6일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개최된 제25회 아시아 태평양 민족음악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



**류진**(영문78-83 풍산 회장) 서애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3월 28일 조선포럼에서 서애 류성룡 영문 평전(최병현 전 호남대 교수 집필) 출판기념회 개최. 류 동문은 류성룡의 13대손.



**설군태**(행대원88-90 재경문학회장) 신라시대 이두를 표준집대성한 유학자 '설총선생 문집' 출판준비위원장을 맡아 최근 문집 출간.



**문주현**(AIP 21기 MDM그룹 회장) 3월 26일 고향장흥에 4년에 걸쳐 인재육성장학금 3억2000만원 기부 약정.

### 삼가 명복을 빕니다

김용철(법학46-50 전 대법원장) 3월 14일 별세(99세)  
이동춘(금속공학53-57 전 대명전자 회장) 3월 24일 별세(90세)  
조광현(치의학58졸 전 영진치과의원 원장) 3월 27일 별세(87세)  
박우희(경제54-58 전 세종대 총장) 3월 14일 별세(87세)  
심재익(잠사56-63 전 잠사회 회장) 3월 11일 별세(86세)  
윤 식(정치58-64 전 국회의원) 3월 24일 별세(83세)  
임경호(행대원65졸 전 영남대 객원교수) 3월 29일 별세(83세)  
박영주(경제59-63 이건산업 회장) 3월 6일 별세(82세)  
박민여(회화62-66 전 경희대 가정대학장) 3월 22일 별세(80세)  
박승윤(전기공학77-81 전 제철산업 이사) 3월 14일 별세(64세)  
김준식(물리91-96 전 모교 컴퓨터공학과 박사후 연구원) 3월 28일 별세(51세)

1 듀오 결혼정보업계 1위 (2021년 매출액 기준)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 결혼해듀오

넌이랑 결혼하기 다려온 설렘 그리고 지금 내게 와야 할 사람

한국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1577 8333

결혼준개입 신고번호: 강남 080031

# 보내주신 사랑, 역사가 됩니다

보내주신 귀한 회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자랑스러운 44만 서울대인의 새 역사 창조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고문·자문위원·회장단·특별과정 동창회장·논설위원·평생회비·연회비·지부분담금 등 : 2023. 2. 24 ~ 2023. 3. 23  
 성명 오른쪽 숫자 : 입학 연도(미확인시 졸업 연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 회비 납부 방법

구분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일반회원	10,000원	50,000원	500,000원 (65세 이상은 300,000원)
이사회원		150,000원	-

### 회비 납부하시면

- 매월 총동창신문 제공
- 익년도 탁상달력 제공
- 경조 서비스 이용
- 건강검진 우대

- 입회비는 입회 시 한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회비와 평생회비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납부해 주십시오.
- 지로 : 지로용지를 가까운 금융기관의 공과금 자동화기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은행계좌 : 다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성함, 학과, 입학 연도를 같이 표기 바랍니다)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농협 079-01-442414    신한 140-001-180304    우리 1005-401-137376    국민 827-01-0248-009
- 신용카드 : www.snua.or.kr 첫 화면 오른쪽 중간 '동문회비·후원금'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도 사용 가능)

### 고문

△김영우	법대 60	△김찬숙	치대 56
△박기문	문리대 63	△손경식	법대 57
△이기준	공대 57		

### 자문위원

△강인규	수외대 59	△류관희	농대 63
△이형균	문리대 59		

### 상임부회장

△구재욱	사대 68	△금춘수	상대 72
△김중훈	공대 69	△민희경	음대 77
△박영안	경영대 72	△박용만	경영대 73
△변준선	사대 60	△이정익	ACAD 34
△이혜숙	사대 68	△정총시	공대 72

### 부회장

△강승구	GLP 14	△권혁한	보대원 75
△김희걸	간호대 78	△문형주	치대 79
△손창민	SGS 24	△양경숙	음대 73
△정자호	사대 68	△임국환	보대원 76
△정기열	AMP 59	△조문순	상대 73
△지창훈	사대 71	△허수영	공대 70

### 특별과정동창회장

△박영숙	CHCN동창회장
------	----------

### 평생회비-이사

△손화현	SPARC 14	△이광범	법대 77
△이규영	공대 90	△이일호	KFL 11
△임남재	의대 57	△황해방	HPM 45

### 평생회비-일반

△김명옥	약대 75	△강소희	공대 13
△강영원	문리대 70	△강윤중	AWASB 10
△강지현	미대 87	△강태진	공대 71
△고광평	문리대 62	△고현선	음대 92
△고규택	의대 18	△권순용	법대 04
△권승혁	공대 74	△김기봉	의대 75
△김태희	공대 85	△김동규	경영대 80
△김동진	문리대 62	△김민지	법대 15
△김보미	FNP 14	△김소현	간호대 08
△김영준	ALP 33	△김용현	법대 74
△김 윤	생활대 95	△김인준	상대 67
△김진순	AMP 93	△김종욱	공대 61
△김정훈	공전원 20	△김홍중	자유전공 14
△김홍연	농대 77	△김희숙	HPM 43
△노경택	농생대 84	△노미리	경영대 00
△류연규	GLP 20	△문원경	자연대 69
△박형구	약대 59	△박병래	사대 61
△박민배	APC 12	△박범석	치대 92
△박상희	미대 82	△박선민	자연대 06
△박소영	미대 73	△박양수	공대 83
△박영희	경대원 90	△박재수	공대 87
△박정화	공대 07	△박주민	생활대 06
△박지수	공대 08	△박지훈	의대 07
△박현규	공대 13	△박현기	수외대 66
△문창우	경영대 03	△배근형	치대 01
△백상수	사대 90	△백형준	SGS 32
△사보성	농생대 91	△석원경	자연대 75
△손재명	치대 03	△송민철	인문대 82
△송병찬	문리대 59	△송재성	경영대 91
△송철홍	의대 57	△최신혜	법대 71
△안우순	행대원 12	△양영옥	경영대 77
△양태연	FIP 04	△오경민	공대 12
△오성룡	자연대 07	△오지은	간호대 00
△오지우	공대원 18	△오종범	음대 09
△유인영	공대 70	△유철환	의대 05
△윤희성	사회대 80	△이강이	가정대 85
△이길형	공대 77	△이미래	경원원 14
△이민규	공대 17	△이성민	대학원 85
△이 석	농대 75	△이정선	가정대 88
△이피란	공대 09	△이한진	공대 73
△이혁준	의대 12	△이효정	약대 91
△임상훈	사회대 86	△장성기	치대 99
△장윤진	AMP 92	△전미호	농생대 85
△전소연	의대 19	△정연옥	KFL 08
△정우양	농대 77	△정일환	행대원 81
△정지윤	사대 99	△정진성	사회대 77
△정진욱	BCP 25	△조성훈	사대 91
△조영권	의대 07	△조원삼	의대 97
△조은지	미대 13	△조종성	인문대 93
△채희연	행대원 03	△최신혜	인문대 10
△최인영	사대 20	△최종혁	ASP 12
△최준환	상대 66	△현화진	가정대 74
△홍유석	공대 84	△황윤연	공대 30
△황정숙	가정대 75		

### 연회비-일반

△임창선	72	△전성덕	54	△전용근	73
△정용길	77	△정재도	82	△조도근	57
△최경호	30	△최호재	60	△최기우	65
△최병주	56	△최은식	63	△홍갑표	59
△황성욱	60	△황재욱	84		

### 연회비-일반

△김미영	88	△김삼만	11
△김유진	85	△안희연	97
△윤아연	14	△이동건	91
△최은빈	17	△최형근	90
△사태하	74	△고우창	97
△김상훈	74	△김성욱	11
△박 철	78	△박해지	06
△배문호	85	△서동욱	86
△양건호	14	△유길수	72
△이정선	93	△이종선	87
△임선호	85	△정승호	10
△조태영	77	△최선호	96
△최형근	69	△홍석훈	13
△지연대	16	△김경희	98
△백재은	01	△손준익	94
△신현섭	92	△원유덕	81
△이승철	86	△이은지	01
△임효선	04	△장원석	96
△주영길	88	△최태환	82
△간호대	71	△한서연	17
△김정호	99	△김희재	20
△서정원	72	△송진우	98
△이현영	15	△장성환	85
△최진경	09	△최희진	10
△최경환	10		

### 연회비-일반

△김기문	58	△이석순	62
△이재환	76	△이준원	74
△장성중	58	△정중수	58
△하유미	84	△한상복	54
△권이경	07	△권준현	18
△김병연	10	△박주현	88
△유서호	94	△육승범	00
△이정연	92	△이정훈	90
△최준영	91		
△문리대	70	△도홍길	61
△소광희	53	△원용우	60
△이계원	59	△이범주	64
△이유용	65	△이재근	59
△이종우	58	△임동우	55
△전석훈	54	△정영섭	66
△최선록	59	△최용욱	52
△홍승호	59		
△김기대	06	△김대혁	78
△김선희	68	△김용환	85
△김희춘	62	△나성숙	71
△서길현	91	△송금나	87
△유정호	04	△이동영	76
△강근우	67	△김순구	58
△김태연	00	△노승행	58
△박영재	87	△백세웅	64
△서주연	04	△송재현	60
△양승국	77	△여상훈	75
△이동훈	59	△이성규	92
△이유우	60	△이응일	60
△이동호	02	△이준동	91
△조성일	61	△한영광	63
△홍순표	60		
△고경순	61	△구자혁	57
△김우석	57	△김기영	07
△김낙연	80	△김봉민	53
△김윤자	59	△김혜우	64
△김건근	79	△노두호	51
△박해국	82	△박이연	83
△박종민	89	△박현주	51
△서부원	53	△서지수	10
△신근섭	74	△신문섭	60
△양중현	00	△이계영	84
△이동호	59	△이려아	03
△이석주	60	△이석주	56
△이재선	01	△이주연	11
△임민수	58	△임학수	69
△조도연	11	△조민경	15
△차미란	81	△채우기	58
△최은자	85	△최학준	60
△한재복	56	△황유라	17
△황채호	61		
△김두산	57	△김봉년	60
△김주환	67	△문학도	58
△배기수	61	△배진성	58
△신동현	56	△이공훈	60
△이종수	64	△임응원	58
△조동희	55	△최명해	68
△허재영	66	△홍순호	62
△김은실	83	△문혜정	92
△신항숙	76	△임화재	79
△하경희	73	△황선유	78
△박경희	98	△배정연	94
△이은경	12		
△고성욱	57	△김기동	78
△김본원	63	△김선일	63
△김정복	61	△서동일	55
△원병희	60	△이강훈	58
△전원표	56	△조동진	86
△최서호	57	△한창훈	73
△김연태	83	△김태환	07
△김희선	82	△유도봉	66
△윤여상	57	△이만재	56
△김두현	72	△김찬호	80
△김성열	92	△김승희	81
△김영명	56	△김일두	06
△김종인	68	△김지현	15
△김현수	93	△김태문	55
△김희우	09	△나현식	15
△남준진	99	△류준근	81
△박광원	78	△박규기	91
△박종대	61	△백남식	68
△송광민	01	△송예한	15
△송재달	53	△신미수	82
△박영민	86	△신승우	02
△양정용	68	△양희구	92
△원우선	14	△원태연	15
△윤용환	70	△윤치은	75
△이승욱	56	△이승욱	91
△이연희	72	△이우일	72
△이인호	82	△이재준	03
△이태호	80	△이현재	15
△이화용	70	△임상규	96
△정재희	11	△정면수	59
△정상진	68	△정의석	85
△조래수	56	△조원대	62
△최규상	71	△최동진	81
△최인서	16	△최우석	95
△최인성	61	△한도석	78
△최희희	09	△최희희	80
△농생대	92	△권성규	79
△김규식	72	△김기복	85
△김진우	78	△김진호	71
△문규해	56	△박문호	82
△백상덕	59	△손성호	58
△양범삼	55	△우정식	53
△이강남	61	△이건우	52

◆행대원	△김수연	11	△김 탁	20	
△김한근	71	△박찬도	64	△사대원	90
△신기탁	64	△임이랑	13	△임한아	07
△최슬기	08				
◆한대원	△강덕원	85	△김배원	88	
△김정아	94	△김태보	76	△송우경	91
△양수정	92	△이종수	91	△최성연	77
◆용대원	△정성문	14			
◆광전원	△문태용	17			
◆국농원	△이용은	16			
◆AMP	△가갑순	18	△강국남	93	
△김영광	65	△민상기	25	△박홍래	10
△윤태하	34	△이순종	93	△정영동	48
△최규관	92	△최병택	06	△홍병희	64
◆AIP	△오 현	05	△이기태	51	
△이문기	16	△이천우	13	△정일재	03
△정현태	45	△조종제	14		
◆ACAD	△문동명	44	△이래철	54	
△전영재	23	△			

# 상연시간 60년, 4막짜리 극

추억의 창



**박정기**  
회화64-68  
극작가·연출가·평론가

60년 전의 이야기를 쓰게 되다니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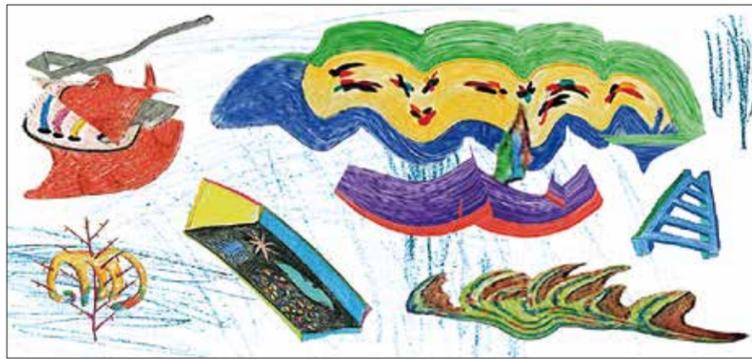
미대에 입학하자마자 고교시절에 연극한 것을 알았는지, 문리대에서 유진 오닐 작 '지평선 너머'에 출연해 달라고 해서 디크 선장으로 출연했더니 진짜 배우 같은 연기를 한다고 놀랐다. 총연 극회에서 입선의 '유령'에도 출연하려고 권해서 만데르스 목사역을 했다. 목사의 대사가 400개 가까이 되는데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했더니 놀라는 표정들이었다.

곧이어 미대에도 연극부가 창단되어 초대 회장을 맡았다. 장 아누이 작 알베르 까뮈 각색 '안티고네'에 크레용으로 출연했다. 미대 교수들이 공연을 보고, '미술보다 연극이 천분인 것 같다'는 말 씬들을 하셨다. 그러자 극단 실험극장에서 출연 요청을 해왔다. 김의경 작·최진하 연출의 '갈대의 노래'에 출연하고, 동인극장 도스토옙스키 작·까뮈 각색의 '악령'에 레비아드킨 대위로도 출연

했다. 그 공연을 본 미학과 출신 황운진 연출과 농대 출신 허규 연출이 TBC TV에서 텔런트를 뽑으니 응시하라고 해, 선발시험에서 방송사가 지정한 연극대사로 연기를 펼쳤는데 심사위원들이 감성이 풍부하다며 수석으로 합격을 시켰다. 텔런트 실장을 맡으며 TV 드라마 신명순 작 '흑야'에서 주인공인 주문모 신부역을 맡았고, 김기팔 작 '춘하추동'에서도 주인공을 맡았다. 한운사 작 '금고 할아버지'에 출연해 한국 최초의 TV 신인연기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모교로 돌아와 단과대학 연극 연출을 했다. 미대, 상대, 공대, 치대, 68극회, 사대, 총연극회 공연을 연출해 달라고 부탁을 해, 연출한 작품들이 '안티고네' '성자의 샘물' '갈릴레오 갈릴레오' '인형의 집' '신의 대리인' '파리페' '안네의 일기' '혈거부족' '암야의 집' '계곡의 그늘' '문밖에서' '악령' 그 외 작품... 연기지도는 물론, 무대 디자인도 직접 하고, 음악도 직접 선곡하고, 조명도 직접 달았다. 연출료를 주어도 받지 않고 무보수 연출을 했다.

60년대가 지나가고 1969년 5·16 문화재단이 서대문 정동사옥에 건설되면서 MBC TV가 TBC와 KBS 텔런트 중 인기 있는 몇 사람에게 전속계약금을



일러스트 김나은(디자인 4학년) 재학생

주고, MBC TV에서 출연하도록 청했다. 그래서 동료 4명과 함께 MBC로 갔다. 개국 드라마로 박계주 원작 소설 '순애보'를 김기팔 작가가 '사랑과 슬픔의 강'이라고 제목을 바꿔 각색했다. 그 작품에서도 주인공 이철진 박사역을 하면서 창창한 앞날을 예측하는 듯싶었다.

그러나 당시는 유신시절, 도처에서 군사정부 반대시위가 일어나고, 동문 중에서 가까웠던 친구들이 시위를 주도해 체포되고 법정 최고형까지 받을 수 감되는 것을 보았다. 혼자만 득세해 승상장구하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송과 출연, 연출을 그만두고 절에 들어가 있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

이 바뀌고 다행히 여러 해 수감되었던 친구들이 석방됐다. 나도 하산을 해 귀가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공연 관계 인사들이 '현재 배우나 연출가는 많이 늘어났는데, 극작가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했다. 당시 삼성문예상의 전신인 도의문화재단작상회극부문에, 추사 김정희 선생이 8년 가까이 제주도에 유배를 당해 있는 동안 추사체를 탄생시킨 것을 '고통이 없이 어찌 아름다움이 피어나리'라는 제목으로 응모해 등단을 하게 됐다. 그래서 추사고택이 있는 충남 예산의 극단 예촌에서 '추사 김정희'라고 제목을 바꿔 그 작품을 공연하고, 인천시립극단에서 내 작품 뮤지컬 '황금 앞사귀'도 공연을 했다. 강우규 의사가

넙사업회의 '65세의 청년 강우규', 안양시의 '만안교 담교놀이', 한국의생활문화원의 '조선왕조 친잠례 재현축제', 그리고 텔런트 극회의 '아버지를 사가세요', 극단 실험의 '사진속의 젊은이', 그리고 로얄씨어터의 '완전한 사랑' 등의 희곡을 계속 써서 공연했는데, 소설가 안수길 선생의 장남이자, 대학 선배인 연극·영화 평론가 안병섭 선배가 평론을 하라고 권하는 것이다. '현재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평론가가 없다'며...

그렇게 쓰기 시작한 미술, 음악, 무용, 그리고 연극과 관련한 공연평이 이십년 가까이 3000개에 이르렀다. 2016년에는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에서 내게 예총 예술대상을 주어 수상하기도 했다. 내 열정과 노력을 하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게 싫어, 받으면서 그 은혜에 감사했다. 현재 내 나이가 80을 넘어섰으니 얼마나 더 작품과 평론, 그리고 연출과 출연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다.

\*박 동문은 극작가, 연출가이자 평론가로 한국 희곡뮤지컬창작워크숍 대표를 맡고 있다. 제 8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심사위원장을 지냈으며, 서울연극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박정기의 공연산책' 1~4권을 펴냈다.

# 이승만과 4·19세대의 만남



**동문 칼립**  
구월환  
사회60-67  
전 세계일보 주필

이승만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역사가 강하고 논쟁적인 인물이다. 그는 이 땅에 민주주의 체제를 세웠지만 그 체제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학생들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도중하차했다.

그 학생들이 이제 80대 노인이 되어 이승만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 그 생각

의 일단(一端)이 지난 3월 26일 4·19세대의 이승만 묘소 집단참배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승만에 대한 평가 얘기가 나오면 찬반양론이 시끄러워지만 그동안 정쟁과 이념갈등의 장(場)에서 굴곡된 부분이 많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제 민주정부 4·19혁명 후 63년이 된 시점에서 뒤돌아볼 때 이승만을 다시 보자는 움직임이 4·19세대에 의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어떤 지도자건 간에 공과(功過)가 있기 마련인데 그것은 당시의 시대상황과 떼놓고 논할 수 없다. 우리가 1948년 처

음 도입한 민주주의는 영국이 원조다. 1215년 왕권한계를 위한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선포 이후 700년간에 걸쳐 온갖 풍파를 겪어오며 만든 것이다.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하루아침에 이식됐으니 시련과 혼란은 예정된 거나 다름없었다.

4·19 당시에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민주주의 대통령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과 링컨이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실제로 전개되는 민주주의는 너무 달랐고 실망이 컸다. 그러던 차에 3·15부정선거가 터졌고 혁명의 불길은 순식간에 이승만과 자유당을 집어삼켰다.

그는 4·19 발발 1주일 만에,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며 하였다. 병원에 들러 부상학생들에게 "장하다, 장

해! 불의를 보고 일어서지 않으면 젊은 이가 아니지"... 이런 말도 남겼다. 3·15 선거만 해도 조병옥의 사망으로 그의 당선은 '떼는 당상'이었으나 그의 나이가 85세의 고령인지라 이기봉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는 이기봉 일파의 농간이 정권의 종말을 가져왔다.

그후 지금까지 12번의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원리주의적 기준을 대치할 현실적 경험적 잣대가 생긴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승만 이외에 대통령 11명, 총리(장면) 1명의 집권을 겪어보았다. 그들 중에 과연 누가 이승만을 능가할 수 있을까?

지도자의 공과(功過)는 항상 논쟁적이다. 공로가 허물을 상쇄하고 얼마나 남느냐가 문제다. 아직 정해진 계산법

은 없다. 따라서 양심과 균형감각이 제일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제 80 나이를 넘겨 아무 정치적 욕심이 없는 4·19세대의 재평가 움직임은 주목할만하다.

이승만은 구한말과 일제 식민지시대, 해방과 건국, 6·25전쟁 등 가장 격동이 심했던 한국사의 현장을 맨 앞에서 헤쳐나간 리더였다. 무엇보다도 그가 선택한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오늘의 번영이 가능했을까?

민주주의 문화가 전무했고 최빈국에 속했던 신생 독립 약소국이 집요한 공산화의 위협 속에서도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된 데에서 초대 대통령의 공을 빼놓을 수 없다. 이제 이승만은 역사의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IEEE DiscoveryPoint Communications(IDPC)

IEEE가 만든 첨단 통신산업 R&D를 위한 All-in-One Platform

Trial가능. 문의 02-3474-5290
이희진 과장 hjlee@kitis.co.kr
김은진 대리 ejkim@kitis.co.kr

**IEEE**

**Authorized Dealer**

**키티스 産學研情報(株)**  
KITIS Info. & Co., Ltd.  
대표 홍영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종신이사)

관악논단

# 양당에 필요한 온건과 소통 공간



**손병권**  
외교82-86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의회로 대변되는 대의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게 된다. 이는 의회가 국민의 뜻을 적절히 살피 협의를 통해 법률이라는 공공재를 제때 제시하지 못할 때,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각종 도전이 몰려온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정쟁으로 인해 의회가 빈번한 교착상태에 빠지고 그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제도권 정치를 쫓아내는 선동적 구호와 장외운동이 정치를 대신하게 된다. 이때 국민의 실망과 좌절감에 편승한 포퓰리즘 세력이 ‘안전’과 ‘뺑’을 무기로 민주적 제도를 망가뜨리면서 득세하게 된다.

한국대의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국회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광장의 정치가 이를 대체하게 되었고, 제도권 정치는 국회 밖 진영논리의 볼모가 되어 버렸다. 집회, 시위, 운동 등 진영 대결이 극대화되자 제도권 정치는 장외정치에 포획되었고, 국회는 국회 안팎의 갈등 속에 표류하면서 타협과 설득의 민주주의는 점점 더 회복력을 잃어 가게 되었다.

그런데 실은 이러한 현상은 국회를 무기력하게 만든 원인이라기보다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결과로 나타났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은 어떤가? 2019년 리얼미터가 대통령, 시민단체, 언론, 노조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2.4%로 나타나 경찰(2.2%)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금년 3월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한국

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중앙정부, 법원, 검찰, 군대 등을 포함한 7개 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2013년 이래 10년째 계속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24.1%)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신 속에서 여의도의 대의정치가 살아나려면 국회는 적극적으로 자체 혁신을 도모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온전한 대의정치의 회복까지 아직은 갈 길이 멀어만 보인다. 지연 통과된 반도체법, 외교까지 확장되는 정파적 대립, 난무하는 탄핵론, 폭로와 반

## 자제력 없으면 민주주의 붕괴 정당 내 소수 목소리 존중을

박의 공방으로 점철된 상임위원회 운영과 본회의 대정부질문 등 우리 국회의 난맥상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 대의정치의 정상궤도로 나가야 하는데,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선거제도의 개혁이나 권력구조의 변경 등 복잡한 이야기는 제쳐두고, 현재 상황에서 정당과 정치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적어 보겠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의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내에서 상대 정당을 정당한 정치적 경쟁자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보수, 진보정당이 서로 경쟁하듯이 종북세력, 토착왜구로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이상, 국회가 국민의 온전한 의사를 대변할 수는 없다. 제거의 대상으로 상대 정당을 본다면 그들을 지지하는 유권자

들도 없어야 할 대상이란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없는 일이다. 여야는 경쟁 속의 공존의 식을 배양해야 한다.

둘째, 보수나 진보정당을 막론하고 정당 내부의 다양성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당내 소수 세력의 목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소선거제라는 선거제도도 인해 거대 정당간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제3당의 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양대 정당 간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는 몇 안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각 정당 내부에서 소위 ‘쓴소리’를 하는 온건 비주류 세력의 목소리가 존중될 때, 각 정당은 당내 극단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나름대로 대화와 타협을 위한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당내 온건파들이 거대 양당 간 소통의 핵(core)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야 모두 국회 입법절차상의 문제는 국회 내에서 처리한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일종의 신사협정도 절실히 보인다. 여야가 입법절차상의 분쟁을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려 하는 것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의 저자들이 강조한 ‘제도적 자제력’이 사라지는 조짐이자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징후이다. 무엇보다 자제의 규범을 되새기며 국회가 스스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야지도부로 구성된 국회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절차적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국회 내부에서 이를 해결해 내려는 국회의장의 결의와 강단이 필요하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대의정치의 구현체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 우리 국회는 제도개혁만큼이나 자기성찰을 통한 태도 변화를 위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학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아시나요



**재학생의 소리**  
**김여원**  
사회 21입  
대학신문 취재부장

어느덧 대학신문 취재부장직을 맡은 지 4달이 지났다. 취재부장이 된 이후 나의 일주일은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다. 매주가 비슷한 모습이지만 또 매주 긴장되는 시간이 있다. 바로 월요일 회의 전이다. 취재부장은 월요일 회의에서 이번 주에 취재할 소재를 발제해야 하는데 그 소재를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회의 시간 직전까지 ‘서울대’를 계속 검색해보고 서울대와 관련된 온갖 SNS 계정을 둘러보고 각 단과대에도 연락을 돌린다. 그래도 안 되

겠다 싶으면 무작정 밖으로 나가 캠퍼스를 한 바퀴 둘러본다.

이렇게 취재 소재를 찾을 때, 빼놓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바로 학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다. 익명으로 자유롭게 글을 남길 수 있는 에브리타임에서 지금 어떤 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면 현재 학우들의 관심사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에브리타임에서는 GPA 환산식 개정 관련 문제가 큰 화제가 됐었고 이에 종학생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대학신문에서도 이를 취재했는데, 그 기사는 단숨에 인기 기사가 됐다.

이렇듯 요즘 나와 에브리타임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하지만 그만큼 에브리타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실망할 때도 많다. 특히 실망스러운 점은 에브

리타임이 건전한 의견 교류의 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에브리타임에서는 매일 다양한 의견이 오가지만 그 의견 교류의 과정이 그저 비난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그 비난이 누군가를 특정한 것일 때도 있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일 때도 많다. 이런 비난의 과정이 이어지다 보면 가장 중요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일은 뒷전이 돼버린다.

매일 에브리타임에서 반복되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 래도 에브리타임은 학우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는 회의, 간담회 등과 달리 요즘 가장 많은 학우들이 사용하고 의견을 나누는 곳인 만큼 의견 교류라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에브리타임이 이제는 건전한 의견 교류의 장이 되길 소망해 본다.

만평

이원복  
건축66입  
덕성여대 명예교수



느티나무칼럼

## ‘천원의 아침’ 손가락 없는 정부



**김영호**  
고고미술사88-92  
한겨레신문 편집인  
본지 논설위원

요즘 대학가의 ‘천원의 아침’이 화제다.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원가를 학교가 부담하는 식이다.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현장을 찾다 보니 간혹 새로 시작된 사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서울대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시작되기 2년 전인 2015년부터 ‘천원의 식사’ 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다. 아침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해 다음 해엔 2018년엔 점심으로까지 확대됐다. 순천향대는 2012년부터 실시했다

는데, 아무래도 이 이름이 내 기억에 각인된 건 서울대 때부터였던 것 같다. 얼마 전엔 서울대 재학시절 1000원짜리 아침을 단골로 이용하던 학생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제도 담당 사무관이 됐다는 ‘미담’ 기사도 나왔다.

‘천원의 아침’에 줄선 학생들의 사 진을 보다 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 말 학생회관 풍경이 떠올랐다. 과 선배들은 간혹 후배들 점심을 사게 되면 학생회관 1식당으로 데려가 500원짜리 식권 쿠폰을 나눠주곤 했다. 이른바 ‘사강’이라 불리던 사범대 앞 간이식당의 400원짜리 자장면, 공대 쪽 공강의 비빔면 등도 우리 세대

들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다. 반면 요즘 대학생들은 어떤 자리에서든 엔(N)분의 1 문화라고 한다. 바람직한 변화임은 분명하나, 그만큼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물가 시대라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이다. 하긴 학생식당 외엔 학교 안에서 갈 곳이 변형된 과거와 달리, 이젠 대학 캠퍼스마다 값비싼 외식업체들이 줄지어 입점해 있다.

그나마 ‘천원의 아침’마저 재정 여건이나 동창들의 기부 사정이 관찮은 학교에나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 수많은 지방 대학들한테는 ‘언감생심’이라고 한다. 얼마 전 만났던 한 지역 교육대학의 교수는 “학생 수가 줄어 원래 세 곳이던 학생식당 입점 업체가 한 곳으로 줄었다”며 “그것도 워낙 자주 바뀌어 우리 학교는 이런 지원사업 신청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천원의 아침’에 대한 호응이 뜨겁자 이달 초 지원 대상을 두 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데다, 어느 여당 최고위원에 따르면 ‘밥 한 공기’를 비우면 쌀값 폭락과 여성들 다이어트까지 해결해줄 수 있다니, 정부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걸 나무랄 이유는 없다. 다만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제도로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열악한 지방대학 문제나 민생고에 대해서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천원의 아침’에 대한 열광 역시 언제 사그라들지 모를 일이다.

인기 편승해 지원 대상 2배 늘려  
민생고·지방대 위기부터 살펴야

서울대 총동창신문

발행인 김중섭	편집인 이경형	편집장 김남주	기자 나경태·박수진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이메일 news@snu.ac.kr
편집디자인 Sac design	인쇄 중앙일보		

\*칼럼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THE HEAVEN

ISLAND RESORT

## 천년 명작 레지던스

‘7성급 더 헤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도 9.0 / 풍속 80m/s 내진내풍 시공, 준공

—  
세계적인 명소 아름다운 바다를 품은  
아일랜드리조트 더 헤븐 대자연에 영감을 받은  
특별한 가치를 더합니다.  
—